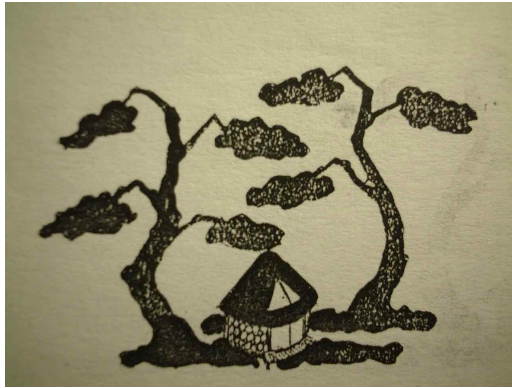


2000년도 간디 중학교 제2회 졸업생 졸업논문



2001년 2월 24일

◎ 차 례 ◎

이름

제목

- ◆강윤나.....색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김석주.....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
- ◆김정은,서청란.....간디학교의 자발성 교육
- ◆신중호.....농업에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문제점
- ◆안준영.....핑크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실태
- ◆유은중.....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이미애.....베베통의 성공 전략
- ◆이장원.....간디인의 자율과 책임....
- ◆임수근.....우리나라의 민속 음악 풍물과 사물놀이의 차이점

논문을 마치고 한마디씩...

색깔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reported by 강유나

I. 서론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지극히 우연적인 것이었다. 언니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디자인과 관련된 책들을 어깨너머 보기 마련이었다. 이런 계기에 디자인 책을 보게 되었고, 컬러가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컬러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예를 들면 ‘수퍼마켓 진열대에 즐비하게 놓인 갖가지 포장의 상품들은 소비자의 눈에 띄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특히 근래 들어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포장 사이즈나 모양이 엇비슷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가 바로 포장의 색깔이다.’ ‘글자에 약간의 컬러만 사용해도 흑백으로 씌어진 글자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색채디자인 전문가는 안되더라도 기본적인 컬러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러한 동기에서 우리 주위에서 컬러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II. 본론

컬러가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1. 컬러가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예)

일본은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컬러 수준이 매우 발달된 나라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모양새 있고 예쁜 물건을 만드는 데 적잖은 신경을 써온 터라 디자인과 컬러 면에서 우리보다 한수 위다.

우리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연구소 관계자들이 입는 하얀 유니폼을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수퍼마켓 직원들이 입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보였던 유니폼은 어느 순간 각 코너의 전문가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흰색 유니폼이 의사나 연구원의 분위기와 오버랩 되면서 야채 의사, 생선 연구원쯤으로 여겨져 왠지 신뢰가 가는 느낌도 받는다. 그리고 매장의 분위기 또한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진열된 물건마저도 그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제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판매원, 보다 청결해 보이는 매장,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 제품, 이 모두가 흰색 유니폼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수퍼마켓 측이 종업원들에게 아름다운 색상을 마

다하고 굳이 흰색 유니폼을 입힌 이유는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노린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보고 사먹는 똑같은 과일이나 똑같은 야채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진열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과일 하나를 놓아도 이 과일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고른 크기의 노란색, 붉은 색, 초록 색 과일들이 훌륭한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놓을 수 있지 않은가. 그뿐인가 우리가 늘 보는 당근이며 무, 오이, 파, 양배추, 상추 등 진열된 야채의 종류는 다를 것이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그것들은 모두 가지런하게 크기가 똑같다. 과일이야 크기가 고른 것들을 진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쳐도 어떻게 그 많은 야채의 색이 모두 고스란히 살아나도록, 곁에 있는 야채 색과 어우러지도록 배열할 수 있을까. 이는 컬러의 특성과 과일의 특성 등을 모두 아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수준 높은 배열이다.

상품의 크기가 다르면 아무리 예쁘게 진열을 해놓아도 이미지가 흐트러져서 효과가 나질 않기 때문이다. 컬러를 돋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크기가 일정해야 한다. 많은 주부들로 하여금 가끔씩 더 많이 사고싶도록 만드는 것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컬러를 고려해서 진열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다면 야채를 사도 마치 귀엽고 예쁜 액세서리를 사는 기분이 들것이다. 이렇듯 찬거리를 장만하면서도 즐겁고 상쾌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묘한 마력. 그것은 다른 아닌 컬러의 절묘한 배합이 가져다주는 시각적인 자극 때문이다.

2. 컬러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 (의상)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을 알려면 그 나라 여자들의 옷 색깔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풍요로우면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옷 색깔이 밝고, 경제가 어려우면 따라서 색깔도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IMF가 몰아 닥친 직후, 우리나라 여성들의 옷을 유심히 살펴봐도 이런 현상은 쉽게 느낄 수 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여자들이 무채색 계열의 옷을 선호하면서 거리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무겁고 어두운 색을 즐겨 쓰게 되는데 그 해답은 컬러와 심리와의 상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컬러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즉 그때의 기분에 따라 컬러를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컬러의 이미지가 시대상황이나 사회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직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음식을 주문 받는 종업원을 볼 수 있다. 마치 파티라도 갈 사람처럼 치렁치렁한 롱스커트에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옷만 놓고 보면 예쁘고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종업원의 차림새로 보기에 눈이 거슬린다. 종업원이 손님보다 더 세련되고 화려하면 아무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손님 편에서는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듯이 직업에도 컬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컬러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풍기는 이미지, 개성, 특성을 얘기한다. 자신의 직업의 컬러를 알지 못하면 앞서 살펴본 종업원처럼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옷차림만으로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쪽은 차림새로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직업 근성이 옷에서부터 우러나기 때문이다.

(㉠) 전문직종 (교사, 의사, 전문 경영인, 예술가, 학자 등...)

전문직종의 사람은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옷 색깔이 두 가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벨트를 맬 수 있는 디자인의 옷이 좋다. 그리고 스커트를 A라인의 타이트한 스커트 차림으로 하는 것이 낫다.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은 그 사람을 활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소품중 핸드백 사이즈는 커야한다. 작으면 일하는 여성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한 부분에만 살짝 포인트를 주면 좋다.

남성의 경우 자기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옷차림이 좋다. 가장 무난한 검색, 회색 컬러에 신선한 느낌의 핑크, 자주, 빨간, 회색, 녹색 등의 계열의 컬러를 매면 좋다. 그러면 양복의 컬러는 튀지 않는 대신 와이셔츠와 넥타이에 포인트를 주게 되어 시선이 얼굴에 머문다. 참고로 체크 무늬의 옷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흑 무늬가 있는 옷이 입고 싶다면 가는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이프 정도가 무난하다.

(㉡) 서비스 직종

서비스 직종의 사람들은 단정하고 서비스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의상을 풍기기 위해서 되도록 유니폼을 입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장품 코너에서

메이크업 상담을 해주는 직원도 유니폼을 입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다르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화장품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 믿음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와 동네 화장품 가게하고 이미지가 다른 것은 바로 그 차이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환자들을 보살펴야 할 간호사가 흰색 가운대신 컬러가 화려한 가운을 입었다고 보자. 신뢰도 면에서 빵점일 것이다. 요즘 흰색이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컬러 가운을 입는 곳이 다소 늘고 있긴 하지만 연한 파스텔 톤 정도로 그치는 것은 신뢰가 우선 이기 때문이다.

(ㄷ) 유니폼을 입는 여성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컬러의 유니폼이지만 입는 사람에 따라 그 이미지는 조금씩 달라보인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가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다. 은행 여직원이 손님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옷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반듯한 깃에, 단추가 정갈하게 달린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반대로 유니폼에 깃이 없거나 블라우스에 화려한 프릴이 달려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가벼워 보여서 어쩐지 돈을 맡기기가 불안해 지는 것이다. 이렇듯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유니폼에 맞는 헤어스타일 등을 개발하고 소품과의 조화에도 신경 쓰면 고객의 눈길은 바고 그런 사람에게 향한다.

(ㄹ) 세일즈맨

세일즈맨은 기본적으로 유행을 고려한 옷차림이 좋다. 늘 똑같은 옷보다는 다양한 색을 연출하여 변화를 주어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남성적이면서 젊고 편안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옷차림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세련미는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이십대가 영업의 주요대상이라면 그 세대가 어울리는 감각적이고 패션어블한 옷차림을 한다. 자신들과 선호도가 같다는 인상을 주면 아무래도 마음이 끌린다.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검은색, 회색, 감색 등의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표정 메이크업을 더한다. 표정 메이크업이란 말, 눈빛, 자세 등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눈빛 하나만으로 인상이 180도 달

라진다. 머리 컬러 또한 남자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눈동자에 어울리는 컬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눈동자와 안 어울리는 색으로 컬러를 준다면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

3. 방컬러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 컬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깨어나서 잘 때까지 어린이들이 마주 대하는 물체치고 컬러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아이의 성격에 따라 컬러를 어떻게 매치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ㄱ) 고집센 아이

이런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색은 입지 않으려 한다. 이런 아이에게는 아이가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입히면서 거부감이 덜한 근접색상으로 두어 종류의 컬러를 매치 하여 점차 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예를 들어 파란색의 근접 색상인 녹색 계열을 매치 시킨다. 이 외에도 소품이나 방 등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색상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ㄴ) 산만한 아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차분한 색상으로 코디를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파란색, 녹색 계열이 이런 아이에게 좋다. 상체는 이런 차분한 분위기로 입히고, 하체는 밝고 선명한 중간색이나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옷이 어울린다. 아이의 방은 무슨 색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색상으로 디자인해야 하며, 산만한 색상은 아이의 시선을 분산시켜 더욱 산만하게 만든다.

(ㄷ) 내성적인 아이

이런 아이는 밝은 색상보다 차분한 색상을 좋아하므로, 컬러의 옷을 많이 입혀서 성격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빨간, 파란, 주황, 노란색 등을 기본 색상으로 하여 흰색과 매치 시켜 변화를 준다. 옷은 물론

이고 소품이나 방도 밝은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㉑) 잘 싸우는 아이

이런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색의 옷을 입히면 점점 견잡을 수 없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성이 없는 녹색, 파란색, 회색 등이 어울린다. 또한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색상의 중간색을 입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방을 꾸밀 때도 복잡한 무늬의 벽지를 피하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을 골라야 한다. 또한 아기자기한 인형, 장난감 등으로 장식하여 아이가 관심과 애정을 쏟도록 해야 한다.

(㉒) 혼자만 노는 아이

이런 아이에게는 화사한 원색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 무채색 옷을 입히면 친구들의 시선을 끌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다. 또한 전에 입어보지 않은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 의욕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 방은 연노란색이나 연녹색 등 봄 색상으로 꾸며주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 기타 소품도 밝은 색으로 바꾸어 준다. 전체 집안의 분위기도 컬러풀하게 꾸며 놓으면 아이는 자극을 받게 된다.

(㉓) 예민한 아이

이런 아이에게는 전체적으로 부드럽으면서도 안정된 느낌을 주는 색상이 좋다. 신경이 예민한 아이를 너무 강한 색으로 꾸미다 보면 성격이 더욱 예민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아이로 하여금 컬러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비슷한 색상으로 차츰 바꾸는 것이 좋다. 아이의 방은 찬 느낌이 나지 않게 파스텔 톤의 색상을 밑바탕으로 하여 변화를 준다.

4. 작업능률에 미치는 컬러의 영향

근래에 이르러서 눈을 혹사하면 여러 가지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안정(眼睛) 피로라는 문제와 더불어 눈부심, 조명도, 광도, 색채 등에 관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도공학(光度工學)’ 또는 ‘색채조절학’이라고 알려진 응용과학들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개발되어 왔다. 안정피로라는 용어는 결코 흔히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눈의 피로’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안정피로의 요인들과 그 결과

안정피로의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심한 질병, 영양실조, 눈을 몹시 혹사시키는 직업, 몹시 번쩍이거나 명암의 대비가 극심한 주위환경, 불충분한 조명 등 인데 안정피로가 지속되면 몸 전체에 걸쳐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 혈압과 맥박 수까지도 증가하며 그에 따라 두통, 구토, 신경과민, 흥분증세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미공중 위생국에 의해 조사된 직업병과 직업 병적인 사망률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약 6000명의 노동자들이 부품들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 중 거의 80%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경우 5년 내에 심장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해질 염려가 있다고 한다.

위의 경우 경영자는 색채구별법을 써서 수치를 나타내면 일부가 지워져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부품을 잘못 조립할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복잡한 전자제품을 정확하게 조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근로자들은 어떤 특정한 색(예를 들면 주황색과 갈색, 파란색과 청녹색)을 구별하기가 힘들므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극도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몸의 휴식을 많이 필요로 하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작업시간으로 인하여 심장병을 유발하게 된다.

(㉡) 조명과 작업 실내환경과의 관계

교실의 밝기가 고르지 못하면 아동들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고 심지어는 뼈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변형된다는 하몬(harmon)의 보고에서와 같이 빛의 강도는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눈을 노랑 빛을 띠는 태양의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범위의 스펙트럼은 가시도(可視度)가 가장 높다. 즉 가장 명확하게,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능력과 오랫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스펙트럼의 중간범위에 있는 파장, 즉 노랑빛, 등 황색빛 및 연두색 빛을 받을 때 생겨난다. 반대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광원의 색은 초록색, 빨간 색, 파란색인데 그 중에도 파란색이 가장 심하다. 흔히 쓰이는 형광등과 백열등은 3500. C의 온도에서 내는 빛을 발하고 잘 보이며, 눈을 편하게 하는 시각조건을 마련하기에는 대체로 만족할 만 하다. 그러므로 조명의 색은 가능한 한 햇빛의 색과 같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시각적인 효율과 안락함, 또는 이상적인 시각조건이라는 문제는 빛의 밝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밝은 조명에 부수되는 색채의 조절이

따르지 않는다면 빛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시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번쩍임이나 극단적인 명도차가 생겨나기 쉽다.

파버·비렌의 견해로, 일반적인 실내조명의 밝기가-극히 세심하게 조절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한다면-100축광을 넘어서는 안되므로 밝은 빛이 필요할 경우 작업대나 작업물 바로 위에 보충적인 광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사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달라서 모든 실내공간의 벽의 색(또는 마루, 장비, 기계류 등의 색)은 그 명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의 모습이 흥해 보이거나 피부색이 거무스레하게 보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가 너무 밝으므로 산만해져서 작업에 주의·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실내환경이 조성되려면 반사율이 25%이하이거나 60%이상인 색을 써서는 안 된다. (천장은 제외) 즉 명도 차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며 눈부심을 없애야 하고 작업물의 조도가 주위의 조도보다 약간 더 밝을 때 시각의 기능이 최대한도로 발휘된다.

(c) 기능적 색채의 색채조절학

기능적 색채라 함은 대체로 색을 사용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나 겉모양보다는 실제적인 목적이 주가 되는 경우에 쓰이는 용어이다. 즉 기능적 색채는 측정 가능한 사실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취향이나 소견 등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갖고서 확실한 증거에 의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크기가 같은 물건들을 놓고 볼 때, 노란색과 흰색이 가장 크게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순서이다. 것처럼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눈이 거리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색에는 전진색이 있고 후퇴 색이 있어서 인간의 눈은 흰색, 노란색, 연두색 같은 전진색 속에서 가장 잘 보이고 파란색 같은 후퇴색 속에서는 가장 잘 안 보인다. 그러므로 색안경을 쓴다면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색안경들은 모든 색이 다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선으로부터 과도한 '번쩍임'을 제거하여 가시도와 명료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외선까지도 차단해 준다. 책의 속종이(책장)나 배색(背色)은 흰색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꼭 배색이 필요하다면 노란색이나 진한 노란색 또는 연두색계통의 색을 쓰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인쇄된 활자가 검은 색일 경우 흰색 다음으로 연한 아이보리색, 또는 연한 크림색이 좋고 그 다음은 연한 황녹색이 좋다.

오늘날 '색채조절학' 이라고 알려져 있는 응용과학은 1920년대 중반에 생겨

난 것으로 가시도, 명료도 및 눈의 피로도와 커다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학문은 눈부심을 방지하고 외과의사들의 시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병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조명도와 색채의 조절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져서, 색채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색채조절학이 병원과 학교에-그리고 나중에는 산업 기지와 사무실에-활용된 이래, 이 학문은 생산고의 증가, 제품의 질 및 기술수준의 향상, '2등급' 과 '불합격품' 의 감소, 사고율의 저하, 공장회계 및 기계유지 수준의 향상 등에 적용되어 왔다.

(2)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색채의 원칙과 유형

작업주위의 조명도가 작업 중심부의 조명도보다 다소 낮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럭키쉬(Luckiesh)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명기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력소모량에 비해 많은 빛을 끌어내기 위해서 흰색이나 흰빛을 띤 누르스름한 색이 작업환경에 좋다고 하는데 그런 조명환경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벽이 흰색일 경우에는 눈동자가 축소되고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가 산만해져 좋지 않다. 겨우 5%나 10%의 조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효율(작업능력)은 25% 또는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작업환경 가운데서 마루가 짙은 색이거나 시설물 및 작업대상물이 짙은 색일 경우 올바른 시각환경이 이루어지려면 벽은 부드러운 색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벽의 반사도가 25% 내지 40% 사이에서 정해질 때 유쾌한 색이 될 수 있고 그런 벽면을 쳐다봄으로써 눈동자가 불필요하게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여 '번쩍임' 같은 자극을 주지 않고 긴장을 늦추어 줌으로써 심리적인 즐거움과 휴식도 준다는 원칙이 산업계에서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색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용으로 쓰이는 색은 부드럽고 약간 회색 빛을 띤 색이 가장 좋은데 그런 색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덜 산만하며 먼지와 얼룩을 가장 효과적으로 숨겨준다.

작업자들이 비교적 고온의 자연환경속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과 같은 '서늘한 색'을 쓰는 것이 논리에 맞다. 그와는 반대로 상아색이나 크림색, 또는 복숭아 색같이 '따뜻한 색'은 천장이 높거나 쓸렁한 곳을 부드럽게 해주며 자연광선의 부족을 보상해 주기에 적합하다. 목욕실이나 휴게실, 간이식당 등과 같이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장소에는 '맑고 깨끗한 색'을

쓰는 편이 좋다. 그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색을 고려하여 남성용은 파란색을, 여성용은 장미색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며, 계단이나 복도처럼 대체로 자연광선이 차단되는 곳에는 노란색 계통의 밝은 색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고의 경우에는 흰색을 쓰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리를 써 가면서 보아야 하는 작업장이나 주위집중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초록색, 회색, 파란색 등을 부드럽게 변화시킨 색들이 가장 좋다. 넓고 천장이 높은 장소에는 벽 전체를 상아색, 크림색 또는 복숭아 색으로 칠하거나 벽의 상단과 하단에 노란색을 사용하면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우중충한 회색 빛의 기계류는 중요부분과 작동부분을 담황색으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색채는 중립적이거나 보다는 지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색채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무질서한 가운데서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작업자가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아울러 색채는 작업과 내면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외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피로가 제거되면 능률의 향상은 자동적으로 수반된다. 더 쉽게 볼 수 있으므로 긴장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색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알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알맞게 구성된 색은 시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분까지도 유쾌하고 활기차게 해준다.

(㉑) 작업능률향상과 색채조절

(㉑)에서 언급한 색채조절학의 연구목적은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절감시키므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미국 산업계에 적용된 색채조절의 가치를 철저히 조사한 전국산업연합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64.7%의 업체에서는 색채를 조절함으로써 조명효과를 높였다고 응답했다.

27.9%의 업체에서는 생산고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했다.

30.9%의 업체에서는 제품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19.1%의 업체에서는 눈 및 신체의 피로가 감소되었다고 논평했다.

14.7%의 업체에서는 색채의 조절이 방심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통틀어서 75%의 업체들이 색채조절 계획에 대해 완전히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5.9%이며,

19.1%의 업체에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5. 사고 발생에 미치는 컬러의 영향

(ㄱ) 안전과 색채의 관계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한 색채분류법은 1940년에 파버·비렌과 뒤풍사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것으로 그 이후 미국표준협회에 의해서 실질적인 국가표준제도로 인정되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란색(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은 충돌위험, 장애물 또는 추락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표준색이다. 명료도가 가장 높은 색이어서 어떠한 조명조건 하에서도 눈에 잘 띈다.

주황색은 절단, 분쇄, 화상 또는 전격(강한 전압의 전기로 받는 충격)등의 극심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색이다.

초록색은 구급장비, 상비약상자, 가스마스크, 의약품 등에 쓰이는 표준색이다.

빨간색은 전적으로 소방기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이는 색이다.

파란색은 주의신호에 쓰이는 색이다.

흰색, 회색 및 검은색은 교통정리와 건물보존에 쓰이는 표준색이다. 이 색은 통로표시나 쓰레기통에 칠해지기도 한다.

(ㄴ) 안전색채분류법의 활용이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색채분류법을 미국의 어떤 국립공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사고발생률이 46.14%에서 5.58%로 감소되었으며 또 어떤 병참기지에서는 사고로 불구가 되는 비율이 13.25%에서 6.99%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38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뉴욕 운송회사에서 안전색채분류법을 적용했을 때 사고율은 42.3%나 감소했다. 이 사고율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매년 50만 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한 셈이 된다. 미국정부에서 제시한 보고서를 보면 산업재해 한 건당 손실액은 1,044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재난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책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제정 적인 입장에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적절한 조명과 적절한 색채의 활용으로 인해 오늘날 미국의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1인당 연간 139.25달러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만일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라면 연간 13,925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라면 연간 절약 액이 139,250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색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는 실제적으로도 맞는 것이며, 건전한 기업투자라는 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Ⅲ. 결론

컬러 하나로 우리는 주위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라든지 성격 형성 과정,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 집안과 가족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작업환경과 작업능률과의 관계와 그리고 컬러가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컬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주위에 어느 것도 없다. 컬러 하나로 자신의 기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각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컬러 하나로 사회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줌으로써 보다 더 유쾌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써내면서 지금까지 빨간색은 무슨 느낌, 어떤 색은 어떤 느낌하고 단순하게 감정적이고도 관습적으로 단정지어 왔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색깔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보았다. 파란색은 남자색, 분홍색은 여자색 이라든지 분홍은 봄색, 파랑은 여름색, 밤색은 가을 색이라고 여태껏 쉽게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아울러 분홍색 하나로도 봄 분홍색, 여름 분홍색, 가을 분홍색, 겨울 분홍색을 다 연출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색이나 4계절의 색상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감탄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색깔로 장소에 따라 적합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상품판매량을 높일 뿐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상승시키며 안전색채조절법을 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저하시킨다.

결국 여러 가지 색채의 변화에 따라 유쾌한 기분이나 불쾌한 기분이 생겨난다는 색채심리학을 주장한 길포트(J. P. Guilford)의 말처럼, 안전색채조절법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때 근로자에게는 안정피로를 덜어주어 개인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통하여 안전감을 갖게 하며, 경영주에게는 작업생산률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위험보험금의 부담을 낮추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

가가 살아남으려는 무한경쟁시대인 지금, 컬러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해야한다. 거기에 덧붙여 정보디자인 산업사회에 적합한 컬러 매칭과 컬러 마케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신의 피부색과, 성격, 취향을 조화시킬 때 본인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큰 즐거움을 더욱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컬러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고 나만의 색을 찾아 더 많은 자료와 서적을 접해보고 싶다.

***참고 서적**

김민경 지음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 명진출판사. 2000

박진배 지음 “디자인 파워플레이” 보성출판사. 1999

파워·비렌 지음 김화중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6

수잔베리·주디 마틴 지음 김미지자역 “디자인과 색의 연출” 예경출판사.
1997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

reported by 김석주

목 차

I. 서론

1. 벤처기업의 개념과 정의
2. 벤처기업의 필요성
3. 벤처기업의 특성

II. 벤처의 현황과 문제점

1. 벤처기업의 현황
 - 1) 사업분야와 비중
 - 2) 경영성과
2. 벤처기업의 문제점
 - 1) 벤처 창업 및 지원환경의 문제점
 - 2) 장외 시장의 문제점

III. 벤처기업 육성방안

1. 창업기반의 확충
2. 벤처캐피탈과 장외시장 활성화
3.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벤처기업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
 -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 벤처기업 육성 이유
 - 벤처기업 육성의 고응 창출 효과
 - 21세기 벤처기업의 비중
 - 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률 평가
 -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벤처기업 분야
 - 벤처기업 육성방식에 대한 문제점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IV. 맺음말

1. 서론

1. 벤처기업의 개념과 정의

- 벤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모험’ ‘투기’ ‘기회’ 라는 뜻이 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은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 시에는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신규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벤처를 다른 말로 「연구 개발형 중소기업」, 「high-tech 기업」, 또는 「모험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벤처의 이론적 정의로는 많은 말이 있으나 공통적 내용으로는

첫째, 고도의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기업화하고

둘째, 기업화에 따르는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고

셋째, 모험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인에 의해 주도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벤처란 위험 부담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며 독자적 신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은 경기 순환 문제와 더불어 지나친 비용 문제 등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산업구조를 고효율,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변 여건의 변화가 벤처 육성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

첫째로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경제 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동시에 소비 성향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 사회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기업의 창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3. 벤처기업의 특성

- 벤처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벤처기업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창업자들이 비교적 젊은 편으로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기술 집약적 기업으로서 대학, 민간 연구 기관 등 지식 집약적 산업

이 인접한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벤처기업은 매출 대비 연구 개발 비용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다.

넷째, 벤처기업은 경영 성과 면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과 수출 비율 등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의사결정, 추진력에 있어서 매우 신속하다. 이 외에도 공통점은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편이어서 어디에선 새로운 자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에 수익률도 높다는 점이다.

II. 벤처의 현황과 문제점

1. 벤처기업의 현황

-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술 경쟁력을 키워 왔다.

우리 나라 벤처기업이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에 신기술 금융회사와 창업 투자 회사가 대거 설립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1987년 장외시장이 개설되면서 벤처창업 열기가 고조되었다. 현재 국내의 경우 1999년 벤처기업은 10000여 개 사에 달하는 데 2006년에는 42000개 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사업분야와 비중

- 벤처기업의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S/W분야가 약 50%로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정보통신, S/W, 컴퓨터 등에서는 비슷한 업종

사업 분야	산업 기기	반도체, 전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전기 기기	의료 기기	컴퓨터	생명 기타
비율 (%)	16.1	9.3	23.0	24.8	12.0	5.6	5.0	6.2	4.2

비중을 보이고 있고 산업 기기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명, 의료와 멀티미디어 분야는 미국의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

2) 경영성과

- 1998년 벤처기업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는 평균 매출액이 98~99년까지 17.1% 증가했고 1998년 평균 당기 순 이익률은 15.0%로서 일반 기업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벤처 매출액 추이

매출액	10억 이하	11 ~ 30	31 ~ 50	51 ~ 100	100 ~ 500	500 이상
비율(%)	24	29	15	15	16	1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경영 성과 실태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액(백만원)	7249	1681	178605
영업이익	748	80	20712
자본금	816	162	80728
매출 성장률(%)	40.4	15.9	22.3
영업 이익률(%)	14.5	4.6	9.8
자기자본율(%)	18.8	27.2	20.8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11.0	0.42	2.57

벤처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40%를 기록하며 일반 기업에 비해 2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업 이익률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에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대기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서 자기 자본비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재원 확보가 심각하다.

2. 벤처기업의 문제점

- 앞에서 우리 나라 벤처의 현황을 본 것과 같이 벤처기업은 독자적 기술과 연구 개발로 기술 개발력과 경영 성과 면에서도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벤처가 가지는 본질적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붓이 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심각하다.

1) 벤처 창업 및 지원환경의 문제점

- 벤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제한으로 창업열기의 확산이 미흡한 점이다.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창업 정보가 부족한 까닭이다.

둘째, 선진국의 벤처 창업의 주류는 대학과 연구기관인 반면에 우리 나라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벤처창업의 주요 원천이 되는 대학과 공공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결과가 상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셋째, 벤처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의 발전이 미약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캐피탈이 지원해야 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자금 지원, 기술개발 계획, 인재 발굴, 폭넓은 네트워크 및 교류 증진을 통한 시장화 촉진 등이 있다.

벤처기업은 개발에 이르기까지 연구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비용, 기술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벤처금융기능의 미 발달로 인해서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 실패에 대한 보험기능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형편이다.

넷째로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창구가 복잡한 것을 들 수 있다. 벤처의 핵심적 자금원인 벤처캐피탈은 「창업 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로 나뉘어 있고 이들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다.

그리고 벤처 관련 법률도 창업 지원법은 통상산업부,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 경제원, 주식회사법은 과학기술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책은 벤처기업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장외 시장의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 장외시장(KOSDAQ)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동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등록 기업 수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연간 거래량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실정이다.

등록 기업 별로 보아도 코스닥 시장에서 월간 주식 거래량이 1천주 이상인 기업은 전체 등록 기업의 30%에 불과해 나머지 사는 월간 주식 거래량이 월간 1천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낮은 위치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우량 벤처기업들은 거래소에 상장한 후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 자본조달을 하고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코스닥은 거래소 시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문화된 증권 회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장외 시장에선 거래 등에서 대형 증권 회사의 점유율이 높는데, 이들이 장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 매매나 기업 분석 업무 등은 거의 하고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문 증권 회사들이 등록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III. 벤처기업 육성방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벤처기업이 미래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인식 부족으로 벤처의 지원, 육성제도 등은 최근에야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경제에 있어서 벤처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부가가치의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벤처 육성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 기업가들이 높은 성장성을 가진 신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해서 벤처 육성의 중심 대상은 벤처의 신기술과 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창업 확충, 자금, 인력, 경영 서비스 등 경영 자원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벤처기업들간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조성 등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금공급의 원활화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우선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1. 창업기반의 확충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발전한 근본적 원인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기술창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해주는 기술창업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TBI)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TBI는 대학, 공공 연구기관, 지방 정부, 민간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능을 집중한 곳이다.

이는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 풍토가 생소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우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 지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대학, 공공기관, 민관기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BI)가 있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나 개발중인 기술의 목표로서는 기술보육센터(Technology Incubator: TI)가 있는데 이를 운영함으로써 기술지도, 공동개발, 각종 기기를 사용하는 데의 편의 제공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벤처캐피탈과 장외시장 활성화

- 벤처캐피탈의 주요 기능은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벤처캐피탈의 역사가 짧아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은 영업대상, 영업기법 등 여러면에서 일반 금융과 차별화된 분

야로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벤처캐피탈을 전문화된 금융 영역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의 나뉘어져 있는 단일화 시켜서 독립되어 있는 전문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벤처기업 자금지원이라는 벤처캐피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방식이 현재 많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도록 각종 환경과 지원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벤처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와 함께 아직까지 미약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여건상 투자 하나만으로는 창업 때부터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외 기술 이전 및 투자 알선, 경영 컨설팅, 각종 정보 제공 및 자료 발간 등의 성장 지원과 함께 벤처의 부족한 정보력, 경영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유망한 벤처기업이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벤처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 이득이 필수적인데, 장외 시장이야말로 자본 이득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능력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육성하여 NASDAQ 시장에 상장될 당시에 적자 상태였던 네스케이프 같은 벤처기업을 발굴하여서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또한 최근에 주식시장 상장이 자유화되면서 상장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되어서 막 창업한 회사가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상장요건을 완화시켜서 막 창업한 기업이 장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에서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을 언급했듯이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상장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코스닥에 대한 인식이다. 등록기업 대부분이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려 할뿐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공모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적극적인 생각이 없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코스닥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당초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NASDAQ과 같이 거래소 시장과 동등한 위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미국의 NASDAQ은 NASDAQ에 상장된 기업들이 뉴욕증시의 상장요인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성장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NASDAQ에 머무르고 투자자들도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하루빨리 거래소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래소와 경쟁하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참고자료: 인터넷(<http://www.allim.go.kr/mag/moa/199912/80.html>)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최근 벤처기업이 5천개를 넘어섰고, 코스닥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본 조사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99년 12월 20일 전화면접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각계 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관 : 월드 리서치

○ 벤처기업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

‘우려된다’ 54.0%

5천개를 넘어선 국내 벤처기업 수와 벤처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바람직한 현상(46.0%)이라는 응답보다는 거품이자 우려스런 현상(54.0%)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

○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정책이다’ 91.0%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견해가 압도적(91.0%)으로 높게 나타

났다.

○ 벤처기업 육성 이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기 때문에’ 38.5%

정부의 벤처기업 집중 육성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았다.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3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22.0%)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ASE=91명)

○ 벤처기업 육성의 고용 창출 효과

‘도움이 될 것이다’ 86.0%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및 해소에 도움이 될까. 조사대상자 중 86.0%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렸다.

○ 21세기 벤처기업의 비중

‘20~29% 수준’ 29.0%

다가오는 21세기에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응답자들의 전망치를 알아보았다. 10% 이하라는 응답은 23.0%이며,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0% 수준이었다.

○ 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률 평가

‘낮을 것이다’ 57.0%

미국에서 벤처기업 성공률은 10% 이하.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벤처기

업의 성공률은 미국보다 낮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57.0%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훨씬 많았다.

○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벤처기업 분야

‘정보통신, 멀티미디어’가 최우선

벤처기업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분야를 지적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S/W, 인터넷 분야(29.0%),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벤처기업 육성방식에 대한 문제점

‘벤처기업 자격이 엄격하지 못하다’ 58.0%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엄격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비율이 5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일반 중소기업 소외(15.0%), 벤처기업 지원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간 공조체제 강화’가 첫 번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간 공조체제 강화를 지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확대(20.0%), 벤처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13.0%) 등의 순이었다.

IV. 맺음말

- 이 논문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육성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나의 생각은 우리 나라 벤처기업과 크게 보면 우리 나라 경제에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엔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 문화를 갖추지 않고서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 벤처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아끼지 말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디학교 자발성 교육

reported by 김정은, 서청란

목차

1. 서론

☞ “간디학교의 자발성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된 동기 ... 2

2. 본론

① 자발성이란? ... 2

② 간디학교의 설립취지 ... 2

⚡ 간디학교의 교육목표 ... 3

☆ 설문지의 결과와 분석으로 본 간디학교의 현재상황 ... 4

3. 결론

① 간디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 8

4. 설문지 & 참고문헌 ... 10

1. 서론

☞ “간디학교의 자발성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된 동기

간디학교가 설립 된지 4년이 지났다. 간디학교가 처음 지향했던 교육목표는 결국엔 탁월한 인간, 봉사적인 인간으로 기르는데 있다. 간디학교는 우리 나라 교육의 등불 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태어났다. 처음 27명의 학생 수에 반해 지금은 102 명의 학생 수와 7:1 의 경쟁 속에 입학 할 수 있는 소위 대단한 학교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처음의 목표에 비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디학교가 지향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우리는 '간디학교의 자발성 교육'을 주제로 한다. 그것은 '자발성' 이라는 단어가 간디학교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 글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 간디학교를 나타내며,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이 바라본 바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학생들의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찾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참된 자발성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본론

① 자발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행하는 성질”이다.

또한 청소년 바오르 학교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며 곧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의미”라고 말한다.

간디학교에서 말하는 자발성의 원칙이란,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자발성을 가질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원칙이다. 강제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나 배움은 결코 기쁨을 남지 못하며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본다. 순수한 자발성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며 곧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의미한다.

☞ 학교의 설립취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왔고, 주입식 교육과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동안 이러한 교육이 국민의 계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것은 사실이나 최근엔 들어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날로 심각한 양상의 학업폭력의 문제,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둘러싼 인생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교육상황, 시대에 뒤떨어진 일률적 주입식 형태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거부 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조기 유학 붐의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 등은 이제 곧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교육, 즉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등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민과 관 어느 쪽에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상황이 아니라, 민과 관이 마음을 열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매우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97년 3월 간디학교가 탄생하였다. 비록 비 인가로 출발했지만 그 의미는 제도권 바깥에 머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권의 폭을 보다 다양하게 보다 깊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 결의이자 촉구로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책임자들 또한 우리와 같은 관점에서 간디학교를 비롯한 많은 형태의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탄생하여 한국의 교육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획일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도움에 힘입어 간디학교는 비인가의 틀을 벗고 당당히 제도권 속에서 인가된 학교로 출발하였다.

간디학교는 앞으로 말로만 전인교육이 아닌 진정한 전인교육의 한 모델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입식이 아닌 창의적 지식교육의 방법 개발, 감성교육과 덕성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외 배치와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양희규)중-

✦ 간디학교의 교육목표

간디학교는 전인적인 인간,공동체적 인간,자연과 조화된 인간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전인적인 인간이란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 정서 인격에 있어서의 최선의 자아실현의 상태를 의미한다.

공동체적 인간이란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책임성"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된 인간이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삶 속에 구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보호나 환경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양희규)중-

☆ 설문지의 결과와 분석으로 본 간디학교의 현주소

→본 설문지에서 1,2,3번 문항 외에는 1개 이상의 의견을 적은 사람도 있었음.

(1) 간디학교는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학생 - yes 53.2% no 44.7% soso 2.1%

*고등학생 - yes 45.45% no 45.45% soso 6.81% 답하지 않음 2.29%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 간디학교에서 자발성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학생 - yes 38.3% no 53.2% soso 8.5%

*고등학생 - yes 31.82% no 61.36% soso 6.82%

중학생들의 생각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모두 반 이상이 자발성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3) 간디학교에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가?

*중학생 - 아직 미정이다.(45.65%)로 첫 번째였고, 어느 정도는 결정되었다.(34.78%) 그 다음으로 확실히 결정되었다. (10.87%) 이다. 기타의견에는 간디학교에 오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8.7%)

*고등학생 -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가 43.64%로 가장 많았고, '확실히 결정되었다.'라고 답한 의견은 25%이다. '아직 미정'이라는 의견은 22.27%이며, 기타에는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답한 것과, 결정된 상태였는데 간디학교에 와서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두 9.09% 이다.

이로 보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들의 의견

① 공부에 대한 생각 중 가장 가까운 것은?

*중학생 -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36.54%)가 가장 많은 표를 가졌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28.85%)로 두 번째 많은 표를 가졌다.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17.31%이고,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각각 1.92%로 같게 나왔다. 그리고 하기 싫다는 의견은 의외로 한 표도 나오지 않아서 중학생들은 공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기타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좋다,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등의 의견으로 13.46%가 나왔다.

*고등학생 -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3.40%로 같았고 공부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14.89%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하기 싫다는 의견은 각각 4.26%로 같았다. 기타의견에는 29.79%로 과목마다 다르다, 필요성에 따라 다르다, 재미는 조금 있지만 하기 싫다, 힘이 든다, 동물이 되기 싫다면 해야한다는 등의 여러 많은 의견이 있었다.

②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생 - 자아실현을 위해서 (36.54%)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직업선택을 잘 하여 좋은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23.08%) 라는 의견이 두 번째였다. 그냥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의견이 9.69% ,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다는 의견이 7.69% 이다. 그냥 시키니까 (3.85%) 지적호기심으로 한다는 의견이 1.92% 이다. 기타의견에는 내 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돈벌기의 수단, 나 스스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모두 17.31% 이다.

*고등학생 - 자아실현을 위해 (34%) 라고 한 의견이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을 잘 하여 좋은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20%) 라는 의견이었다. 그냥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의견이 10% 이다. 지적호기심으로 한다는 의견이 8% 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다는 의견과 그냥 시키니까 한다 (2%)는 의견이 같다. 기타의견에는 필요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니까, 인생은 배움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하고 싶어서, 너무 재밌어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총 24% 가 나왔다.

③ 간디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중학생 - 어느 정도는 하고있다(68.09%)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17.20%) 거의 하고 있지 않다(14.71%) 의 순서로 많은 학생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 어느 정도는 하고있다(60.47%)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23.26%) 거의 하고 있지 않다(9.30%) 아예 손도 안 대고있다(2.33%)가 나와서 고등학생 역시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중학생보다는 최선을 다한다고 답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에서는 너만큼은 한나라고 제법 반항적이고 장난스런 의견도 나왔으며, 과목마다 다르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4.64%)

(5) 학교의 현 상황

① 가장 공부 잘 되는 시간은?

*중학생 - 묵학시간(34.69%) 수업시간, 방학(각각 22.45%) 여가시간(10.01%)으로 묵학시간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방학이 22.45%나 나와서 아직은 학교에서보다 집에서 공부 잘 되는 학생이 많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는 10.20%로 잠자기 전, 늦은 밤, 새벽, 학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고등학생 - 35.42%의 묵학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그 뒤로는 18.75%의 수업시간, 여가시간(16.66%), 방학(4.17%)으로 중학생들이 방학을 22.45%의 표를 준데 비하여 고등학생들은

방학보다는 학기 중에 공부가 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타는 25%로 개인지도, 하고 싶은 때
공강 등의 의견이 나왔다.

②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중학생 - 도서관(29.53%) 기숙사(25.45%) 집(16.57%) 학교(11.16%) 순 이고, 기타의견에
는 집, 조용한 곳, 아무 데나, 아늑한 곳, 과외학원 등이 있으며, (17.29%) 이다.

*고등학생 - 도서관 (33.33%) 기숙사 (22.92%) 학교 (10.42%) 집 (8.33%) 순 이고, 기타
에는 없다, 하기 편한 곳, 혼자 있는 곳, 어디든지, 기본 좋은 곳, 조용한 곳, 방 등이 있었다.
모두 25% 이다.

③ 기숙사 내에서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중학생 - 잘 안 되는 편이다. (48.02%) 그저 그렇다. (27.53%) 잘 되는 편이다.
(17.33%) 기타에는 전혀 안 된다, 모르겠다 는 의견이 있었다. (7.12%)

*고등학생 - 그저 그렇다. (37.21%) 잘 안 되는 편이다. (30.23%) 잘 되는 편이다.
(16.28%)의 의견이 나오므로써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잘된다 는
의견은 소수여서 기숙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전혀 안 된다, 때 로는 잘되고
때로는 잘 되지 않는다, 항상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16.28%)

중. 고등학생 모두 기숙사에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④ 방학 때 거의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중학생 - 40.53%의 부족한 과목 보충이 많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새로운 과목을 넓히 기
위한 여행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과외 또는 학원이 각각 19.05%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아 방학이란 학교에서 잘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는 시간으 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는 3.51 %의 아르바이트와 17.86%의 기타의견이었는데, 기타로는 잠자기, 놀기,
진로공부 등이 나왔다. 그 중에 놀기는 6표가 나오므로써 7.06% 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 고등학생은 중학생과는 달리 새로운 과목을 넓히기 위한 여행이 31.33%를 차
지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22.89%의 부족한 과목 보충이 나와 중 . 고등학생이 모두 공 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 과외
또는 학원이 각각 13.25%, 기타가 19.28%의 표를 받았다. 기타에는 놀기, 자원봉사, 직업체험
등의 의견이 있었다.

⑤ 주로 학과이외의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 중학생 - 전산실 사용(18.99%), 다른 예체능활동과 그냥 있겠다 (각각 16.72%), 과목
보충이나 숙제(13.11%), 운동(11.92%), 산책(10.13%)의 순서로 전산실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 비율 차가 별로 크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두루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에는 잔다, 매점, 옷 만들기 등의 의견으로 12.41% 의 표를 받았다.

*고등학생 -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전산실 사용이 가장 많았다 (21.69%) 다른 예체능활동 (16.75%) 산책(15.19%) 운동,그냥 있겠다(각각 14.06%) 학과목 보충이나 숙제(7.94%) 들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로는 독서, 음악, 일기, 논다, 옷 만들기 등 총 10.31%가 나왔 다.

(6)학생들의 바람

① 학생들은 수업 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

*중학생 - 악기연주를 원한다는 학생이 37.2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5.43%인 기타 (도자기, 운동, 놀기, 오락, 진로공부...)와 수영(16.95%)과 춤(20.33%)가 있었다.

*고등학생 -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36.73%인 악기연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춤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16.34% 이다. 다음 순서로 10.20% 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 다. 나머지 테니스, 농구, 스쿼시 등의 운동 그리고 도자기 등의 예술 활동 외에는 잠, 생각, 놀기, 독서, 진로에 대한 공부 등을 하고싶다는 의견이 36.73% 이다.

② 간디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인생공부와 학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디 학교에서 해 줘야 할 것”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학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 간디학교에서 해 줘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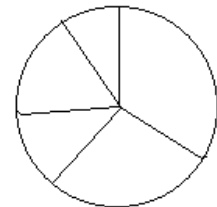
*중학생 - 해외실습이 32.81% ,전문강사 초빙(15.62%), 진로강의 25%, 기타(잡은 상담, 체험학습..)가15.63%, 무용 등 예체능이 10.94% 이다. 15.63%의

기타의견에는 많은 체험과 경험, 국내 실습을 하게 해달라는 의견,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 잡은 상담을 해 주었으면.. , 해야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견과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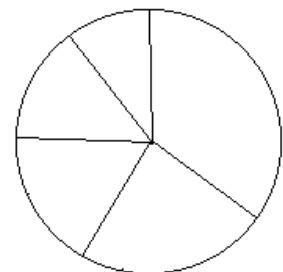
*고등학생 - 첫 번째가 전문강사 초빙 33.33%, 중학생 들이 해외실습을 꼽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무용 등 예체능이 19.05% , 해외 실습 17.46%, 진로강의가 15.87%이다. 기타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 실력 있는 선생님, 자세한 정보, 실습, 혼자만의 공간 마련, 분위기 조성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Hungry 정신 등의 장난스런 의견도 있었다. 다 합한 기타의견은 총 14.29% 이다.

㉡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중학생 - 조금 더 깊은 이해(30.67%) 족집게 같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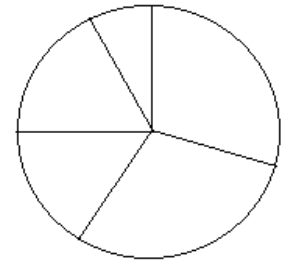


그래프1: (간디..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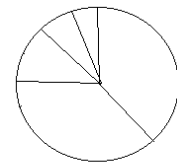
그래프2: (간디..)고등학생

풀이(26.67%)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 (13.33%)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9.33%) 기타 의견에는 지금도 좋다, 도덕/예절 지도,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 진로에 관한 것, 놀아 주면서 공부, 재미있는 수업, 많은 관심 지속 적인 충고 등으로 20% 이의 통계결과가 나왔다.



그래프3: (선생님..)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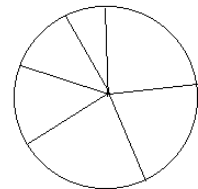
*고등학생 - 고등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8.46%로 가장 많았고,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의견이 34.62% 이다. 족집게 같은 문제 풀이가 13.46%,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7% 이다. 기타 의견에는 필요할 때 잘 해주시길.. 다양한 수업방식 자발성 유도, 이해하고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의견으로 모두 7.69%이다.



그래프4: (선생님..)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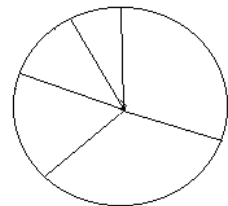
㉔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중학생 - 첫째로 애정 어린 믿음과 지지(23.64%) 두 번째는 지나친 기대의 완화(21.82%), 그 다음 학교 및 자녀에 대한 관심(20.45%) 순 이다. 진지하고 깊은 상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12.09% 이다. 진학에 대한 적당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27% 이다. 기타 의견에는 애정, 자녀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것, 물질적 공세, 학생에게 참견하지 말아 달라, 자상한 위로,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것, 지금으로도 완벽하다는 등의 의견 들이 있었다.(14.73%)



그래프5: (학부모..)중학생

*고등학생 - 지나친 기대의 완화라고 답한 의견과 애정 어린 믿음과 지지라고 답한 의견이 각각 25.91%로 같았다. 다음으로 학교 및 자녀에 대한 관심(16.36%) 진지하고 깊은 상담 (14.45%) 진학에 대한 적당한 부담감(7.28%) 기타 의견은 10.09%으로 자발성 유도, 관여하지 말라, 자금지원, 자유 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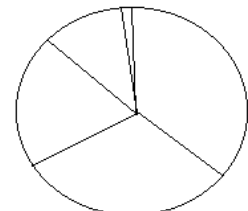
그래프6: (학부모..)고등학생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지지, 적당한 부담감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해 기대를 거두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㉕ 간디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할 것

그렇다면, 학생들이 개선하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 불평보다는 한 번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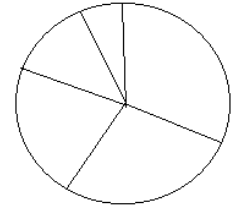
그래프7: (학생들..)중학생

그리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30.56%)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아서, 학생들 스스로 행동으로 불평만 할 뿐,
옳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좋은 분위기 만들기가 20.84% 이고, 규칙 잘 지키기가 8.33% 이다. 이러한 결
과는 학생들 스스로 생활태도에 만족하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는 자발성이라 고 답한
것이 1.38%로 나왔다.

*고등학생 - 중학생과 같이 불평보다는 한번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 3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답이 31.08% 이다. 좋은 분위기 만들기가
22.99% 규칙 잘 지키기 9.46% 이다. 나머지 기타에는 자발성,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인간 관계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총 4.04%를 차지했다.



그래프8: (학생들..)고등학생

3. 결론

8 간디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우리는 이제까지 설문지로서 간디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학생들은 간디학교에서 자발성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학습적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학시간과 도서실 사용, 기숙사 분위기는 초기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특히 기숙사 내에서 공부가
안 된다는 학생이 반에 가까웠다. 또한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방학 때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한다고
했고,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 활동 등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과 외에는 전산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그냥 있겠다는 학생이 중·고등학생 모두 적지 않아서 학과 외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위와 같은 (학교에서 놓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풍토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 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악기연주나 도자기,
진로공부, 수영, 춤 등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선생님을 마련하여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인 해외실습, 체험학습, 경험의 장 등을 만들고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무용이나 국악, 체육 쪽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는 등 길을
터 주어 주었으면 한다.

선생님들 또한 때론 다정하고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때론 엄격하고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믿음과 지지를 주시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말아주셨으면 한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불평보다 한 번 해보는 자세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호흡을 맞추어나가며 많은 대화로서
서로 보안하는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설문지 & 참고문헌

♪ 설문지

=====

《 설 문 지 》 중 . 고 ()학년 남 .
여

1.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 no)

2. 간디학교에서 자발성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 no)

3. 간디학교에 와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가?

① 확실히 결정되었다

③ 아직 미정이다

② 어느 정도는 결정되었다

④ 기타 ()

4.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⑤ 지적호기심으로.

② 직업선택을 잘 하여 좋은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⑥ 그냥 시키니까.

③ 대학을 가기 위하여.

⑦ 기타()

④ 그냥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5. 다음 중 공부에 대한 생각 중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공부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②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④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 ⑥ 하기 싫다.
- ⑦ 기타()

6. 당신의 학교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①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 ③ 거의 하고있지 않다.
 - ④ 아예 손도 안대고 있다.

7.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은?
- ① 묵학시간
 - ② 수업시간
 - ③ 방학
 - ④ 여과시간
 - ⑤ 기타 ()

8.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 ① 학교
 - ② 기숙사
 - ③ 도서실
 - ④ 집
 - ⑤ 기타()

9. 기숙사 내에서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잘 되는 편이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잘 안 되는 편이다.
 - ④ 기타 ()

10. 만약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기숙사 분위기 때문.
 - ②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 ③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 ④ 공부할 장소가 모자라기 때문.
 - ⑤ 내가 하기 싫기 때문.
 - ⑥ 기타 ()

11. 방학일 때 거의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개수 상관없음)
- ① 새로운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
 - ② 아르바이트
 - ③ 부족한 교과목 보충
 - ④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 과외 또는 학원
 - ⑤ 기타 ()

12. 주로 학과 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 ① 교과목 보충이나 숙제
 - ④ 산책
 - ⑦ 기타()

=====
=====
♪ 참고문헌

-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에듀토피아) [교육학] 양희규 / 내일을여는책 /1997년 07월)
- 간디학교홈페이지([http : //user.chollian.net/~gandhis](http://user.chollian.net/~gandhis))
(www.yahoo.co.kr에서 "간디" 검색)

● 하고 난 뒤의 느낌 ●

정은이 : 음.. 글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 간디학교의 자발성 교육을 주제로 한 의도는 참 좋았던 것 같다.
미흡한 점도 많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미련도 남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끝나니까 참 속이 시원하다..
야~ 끝났다!!! ^o^

청란이 : 논문이 다 완성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끝난 것 같지도 않게 끝나다니.. 우리가
이 논문 쓴 것이 학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다..
정은이랑 같이 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들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논문들도 썼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가 정말 참된 자발성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2000년 이른 겨울 초록지붕아래

벽돌집에서...

졸업논문

논문 주제: 농업에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문제점

작성자: 중3 신중호

농업에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문제점

<목 차>

#연구방법

I. <서론>

II. <본론> 농업발전의 문제점과 지구환경의 악화

1. 화학 집약적 농업의 문제점
2. 녹색혁명의 문제점
3. 지구 환경 악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영향

III. 농업의 문제점과 환경오염

1.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
2. 과도한 농약사용의 부작용
3. 집약축산의 의한 환경오염
4. 비닐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기능 약화와 토양 침식

IV 유기농법이란 무엇인가?

V. <결론>

참고문헌

#연구방법: 인터넷 조사와 신문참고

I. <서론>

나는 간디 중학교에 입학해서 농업을 난생 처음 접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태어난 나로써는 농업이 매우 신기하고 생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텃밭 가꾸기등 농사수업을 받으면서 농업은 나에게 금방 친숙해졌다. 그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가족적 생계농업이 대부분이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매우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식량을 대량생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늘어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나는 농업의 환경오염이 무엇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 논문에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농업발전과 환경의 문제점과 지구환경의 악화

1. 화학 집약적 농업

자연 생태계는 자연선택을 거쳐서 진화한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 등이 대기·물·토양과 햇볕 그리고 기후 등과 상호작용 하여 유기물질을 생산하고 에너지와 물질을 이전시키고 재순환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농업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를 갖고 있는 물질순환기능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공적인 개조를 가하여 변형시키게 되면 물질의 순환이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농업환경은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은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과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까지를 포함하며 건전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 생태적 조건과 사회 제도적 조건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 생산의 화학적 집약화는 (화학 집약적 농업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을 받은 농업을 말한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요약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나친 화학비료·농약 및 사료의 사용으로 인한 식품의 잔류농약문제는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둘째,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과 대규모 가축사양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와 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셋째, 농약의 오용과 과다한 사용은 농민들에게 농약중독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병충해의 농약에 대한 사용 증가는 더욱 독성이 큰 농약을 개발해야 하며 농약의 사용량을 계속 증가 시켜야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와 각종 공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활하수와 폐수·산업폐기물·매연 등에 의한 수질오염·대기 오염 등에 의해 농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생산이 큰 지장을 받

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가 자외선의 침투를 증가시키는 데 이것이 농작물이 자라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 식량생산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2. 녹색혁명의 문제점

녹색혁명이란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의 개선을 말한다. 인류는 농경지 계량 농업기술 개선 품종계량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중에서도 교잡이 와 돌연변이 등을 이용한 품종계량 연구를 통해 수확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생산량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품종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농산물을 유전자 농산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면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토감, 줄기에는 가지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가지감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 약화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3. 지구 환경 악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영향

가장 심각한 대기층의 오염은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이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50km 높이의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남극권 상공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큰 구멍이 뚫려 있으며 북극에서도 오존층의 대량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농작물 중 70 ~ 80%가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즉 식물의 기관 중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잎은 자외선의 증가에 따라 잎 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광합성 불량으로 인해서 식물체 전체의 성장저하가 초래된다. 벼에 있어서도 오존층 파괴가 10% 전후만 되어도 수확량은 30%정도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외선은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삼림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자외선은 바닷속의 플랑크톤을 감소시킴으로써 해양 동물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오존층의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는 원래 천연상태에서는 없던 물질로서 인간에 의해 새로 개발된 물질이다. 프레온가스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고 쿠션·매트리스 등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아직까지 값싸고 실용적인 대체물질의 개발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도 지난 10년 동안 0.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나라도 이미 오존층 파괴에 따른 위험구역에 들어서고 있으며, 오늘날의 상태로 오존층 파괴가 계속된다면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환경전문가의 경고는 이미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프레온가스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로는 산성비의 문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산성비는 공업화로 인한 아황산가스과 질소산화물들이다. 산성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피해는 삼림파괴현상이다. 오존층의 파괴와 산성비 현상이 이처럼 인류의 생존환경과 산업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Ⅲ. 농업의 문제점

1.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농민들은 식물에 대한 영양소의 공급을 위하여 퇴비 대신 값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 나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보면 논·밭의 경우 1964 ~ 68년에는 2.6%이었으나 1980 ~ 88년에는 2.3%이었으며, 밭의 경우에는 1.9%(1985~88년 기준)로 미국과 일본의 4.0~5.0%의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농촌진흥청, 1989).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수질오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학비료가 유실되어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될 경우, 동식물의 서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연구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단위면적당 화학비료의 사용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으며, 1970 ~ 90년 기간 중에 화학비료의 사용량(성분기준)이 약 2.7배나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다.

2. 과도한 농약 사용의 부작용

살충·살균 및 제초제의 사용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함은 물론, 나아가 인체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1975~89년 기간 중 농약의 국내 사용량은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밭에서의 농약 사용량이 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토양과 수질의 오염이다. 농작물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농약이나 제초제는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식수의 오염은 물론이고 어류와 어패류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토양을 오염시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약의 과도한 사용은 농민들에게 농약중독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농민들이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농약의 과도한 사용도 커다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많은 농민들이 농약중독을 경험하고 가능한 한 농약사용을 줄이는 유기농업과 같은 영농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 집약축산에 의한 환경오염

집약축산이란 양계, 양돈, 낙농 등의 축산종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루 집약적인 축산이 발전함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양돈·양계 및 낙농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우사육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약축산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악취와 함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4. 비닐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기능 약화와 토양 침식

농업에 이용된 비닐의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비닐공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1991년에 농업부문에서 사용된 비닐양은 약 8만5천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회수된 것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환경처, 1992). 미회수된 비닐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물론이고 토양의 성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비닐의 대부분은 자연상태 하에서 분해 성이 매우 낮아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 발전의 면에서 보면 사용된 비닐의 회수나 분해 성이 높은 새로운 비닐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토양침식이다. 우리 나라는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이 심각하며, 침식된 토양은 호수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농작물에 사용된 화학비료의 약 70%가 유실되고 있으며, 토양 중에 축적된 유기물도 함께 유실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화학비료 중심의 농업기술 발달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V 유기농법이란 무엇인가?

유기농법이란 농작물을 재배할 때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해 값이 비싸다. 소비자는 외관만으로는 그 농산물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기식품에는 농약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기식품에도 빗물이나 천연농약 탓에 농약이 잔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기식품이 더 영양이 많고, 맛도 좋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영양 면에서 보면 유기농법에서 생산된 것이든 일반농업으로 생산된 것이든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유기식품을 살 필요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왜냐하면 유기농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유기농법을 쓰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줄어들어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 식품의 값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값을 함께 치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위와 같은 농업의 여러 환경오염의 문제점은 환경오염과 농업에서 생기는 오염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생긴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의 모든 일들이 모두 자연환경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줄여 오존층의 파괴를 막아서 식량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축산 폐기물을 발효시켜 비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축산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농업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유기농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인터넷

각종 웹 문서

한겨레 21

작품소개-장르는 펑크음악이다. 총10곡중 모든곡이 카피곡이고 그중3곡은 편곡을 했다.
 카피곡이라서 원작에 느낌을 잘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되지 않은 것 같다.
 편곡곡중 두곡은 아직 우리실력이 모자라서 좀더 쉽게 바꾼경우이다. 나는 이앨범에서 보컬
 과 기타로 참여를 했다.

펑크란-펑크는 음악적으로 세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있다. 펑크의 탄생배경인 60년대 미국에
 서 시작되어 6, 70년대 사회의 우울함 즉 자본주의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사회는 고도로 성장
 해가고 그에 따라 빈부예격 차는 늘어만 갈때 그당시 가난한 젊은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할 일이 없자이에 분노를 느껴 탄생을 했다. 그러나 그당시 락음악계는 매우 테크닉위주에
 음악이라 펑크를 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며 매우 단순하고 반항적인 노래가
 사를 썼다. 그래서 모습에서도 개 목걸이나 삐죽한머리 스타일등으로 점차 행동이나 패션
 등으로 한문화로 자리잡고있다.

앨범 제목- 민들레 레이블 우헤헤헤 라이브

밴드소개-드럼 박성준

수록곡-1좀비(게스트 나탈2기)

1기타 김재현

2크립(게스트 나탈2기)

2기타 강석희(아름다운세상,

3 불가마2000 원곡 부른이 -슈퍼마켓

김치국물에 빠진 바퀴벌레,

4청공 원곡 부른이-레이지본

러브 스토리 까지)

5펑크걸 원곡 부른이-크라잉 닷

보컬 겸 기타-안준영

6펑크는 지겨워 원곡 부른이-껌

베이스-이경택

7러브스토리-원곡 부른이-랜드라라

8김치국물에 빠진 바퀴벌레 원곡 부른이-랜드라라

9아름다운 세상원곡 부른이-노브레인

10예쁜 소녀 공부하러가다. 원곡 부른이-내몸에 꿀발랐수

11짜잔 원곡 부른이-푸른 펑크벌레

12말달리자 원곡 부른이-크라잉 닷

앵콜곡

청공, 아름다운 세상 총 14곡

편곡-예쁜소녀 공부하러가다. 불가마2000, 김치국물에 빠진 바퀴벌레

총 60분 분량 만든이-민들레 레이블 장르-펑크

녹음-서승희

녹음기협조-김성만 선생님

표지제작-안준영

앨범을 만들고나서 나의 느낌-아~ 무슨 말을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냥 너무 뿌듯하다.
 고생고생 해서 연습을 하고 그걸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 실황을 녹음시킨 라이브 앨범 탄생
 많은걸 포기하고 만든 앨범이라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다. 자작곡이 들어가지않아 좀 섭섭하
 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내가 똑같이 부른다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행복한것같
 다. 연습때나 공연때 난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공연실화이 테이프를 나왔을 때 너무 뿌듯했
 다. 밴드 활동이란 너무 좋은 것 같다. 왜냐면 협동심을 기를수 있기에 너무 좋은 것 같다.

서론

T. V에서 우리 나라 관광의 문제점과 영어표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을까?’ 라니 생각이 들었다. 이때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지 실감을 하고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먹골” 역에 “골”을 “KOL"이라고 써있었다. ” 먹골인가? “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할 것이다. 이때 실감했다. 얼마나 조그만 한 것부터 잘못되어있는지. 그러다가 제주도에 갔다. 역시 관광명문도시였다. 안내표지판을 바르게 발음대로 바꿔놓았다. 놀렸으나 역시 유명한곳만 그랬고 다른 곳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논문을 하게되었다. 다시 관광생각이 났고 ‘그래 이걸로 논문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표기법으로 만하기는 너무 작아서 한국관광 전체를 가지고 “한국관광의 문제들 이럴수가!!” 라는 제목과 함께 이 논문을 시작한다.

본론

1. 외국인들의 관광 불만

서귀포 P관광호텔에서 1박에 7만원이나 주고 4박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 파이프가 녹슬어 수도에서 갈색 물이 나왔다. 샤워꼭지와 욕실선반은 망가져 있었고 욕조는 얼룩이 심했다. 벽에 구멍이 나서 옆방이 들여다보이고 말소리와 TV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전등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4박을 했는데 체크아웃시 5박 요금을 내라고 해서 직전에 묵었던 호텔로 전화를 해서 확인시켜야 했다 _G F 버캔해드(캐나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가라오케 점에서 360ml 병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불고기 1접시, 오징어 1접시를 먹고 노래 1곡을 부른 게 전부인데 1백27만원이나 청구당했다. 항의를 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져 겁이 나서 주고 나왔다. 기가 막히다」
_무라마쓰 마사히로(일본)

한라관광전문대학에 교수로 근무 중이어서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간다. 그런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K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를 싫어해 취업비자를 제때 내주지 않고 복수입국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는 등 나와 가족들을 골탕먹인다. 비자는 명확하게 법적인 절차인데도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괴롭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_캘빈 스미스(미국)

공항에서 입국카드를 작성하게 됐는데 영어로 된 양식이 없어 5명의 일행이 30분간이나 찾아 헤매야 했다. 「Help Desk」에는 오후 3시밖에 안됐는데도 아무도 없었다. 한국의 수준을 알 것 같다」_MS 메이어(영국)

부산 태종대에서 택시를 타고 송도를 가던 중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것같아 빠른 길을 얘기했더니 기사가 다짜고짜 『씨팔년 영업하는데 방해 하나』고 욕을 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그러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씨팔년 팍 주기빨라』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는 겁이

나서 차비를 의자 위에 던져두고 급히 뛰어 내렸다. 모처럼 한국에 왔는데 2002년 월드컵이 걱정된다」 -박매지(재일 동포)

지난해 가을 친구와 부여에 놀러 갔다. 일본의 안내책자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느릿느릿 흐르는 백마강과 백제열망에 얽힌 얘기를 간직한 부소산 등을 마음속에 그리며 서울을 떠났다. 고속도로를 달려 부여에 도착해 보니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였다. 역사의 마을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10분 정도 걸어 도착한 백마강과 부소산. 역사적 유적이 현대식 마을 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듯한 느낌이었다. 한국에는 유명한 관광지 많다. 나도 이미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제주도설악산 부산 대전 안동 등 10곳 이상을 구경했다. 어디에 가든 "마을 모습이 다 똑같지 않나"하고 약간의 실망을 느껴야 했다. 나는 지금까지 대학시절 이탈리아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을 비록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지를 여행했지만 유명한 관광지는 마을전체가 관광지화해 있는 인상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근대적인 건물조차 없고 중세양식의 벽돌집뿐이다. 집집마다 베란다를 제라늄 등 갖가지 꽃으로 치장돼 있고 거리에서는 지저분한 휴지조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치 1000년전의 마을로 길을 잃고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집 모양과 색깔은 유럽풍이다. 관광객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탓인지 아름다운 마을을 지키고 가꾸려는 의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더라도 별다른 묘미를 느낄 수 없는 것 아닐까. 역사적 유적이 많은 마을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하수도 뚜껑까지 유적지의 멋을 살리는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한다면 바다가가 자랑인 마을이라면 마을 전체를 바다와 어울리는 형태와 색깔로 가꿔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마을 표정이 약간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의 뇌리에 남는 인상은 크게 달라져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마을 분위기를 다시 맛보고 싶어질 것이다. 끝으로 많은 일본친구들이 입을 모아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있다. 바로 편리한 고속버스다. 웬만한 곳은 1만원이면 가고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교통체증 염려도 별로 없다.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자랑인 고속버스만은 되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외국인의 바람이다. - 어느 일본인

2.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

미국의 비즈니스 여행전문 격주간지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가 실은 기사에 따르면 97년 세계 1백개 주요 도시의 체재비 조사에서 서울은 하루평균 5백2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도시로 평가됐다. 홍콩은 6백24달러로 체재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는 도시로 뽑혔으며 도쿄 5백99달러, 몬테카를로 5백79달러 파리 5백39달러 런던은 5백5달러로 파악됐다. 세계 1백개 주요 도시의 하루 평균 체재비용은 호텔비66%, 식비 25%, 기타 9%의 구성비를 보였다. 봉사료를 포함한 하루 식비에서는 서울이 아침 23달러, 점심 36달러, 저녁 95달러 등 총 1백54달러로 몬테카를로의 1백67달러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했다. 이어 헬싱키(1백46달러), 홍콩(1백41달러), 도쿄(1백40달러)가 고가의 식비를 지불해야 하는 도시로 지적됐다. 또 한 도시에서 최소 2개이상의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서울의 하루 호텔 비는 평균 3백1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도시로 평가됐다. 체재비가 가장 많이 드는 홍콩은 호텔 비에서도 4백26달러로 1위에 올랐으며 도쿄와 파리가 각각 4백9달러

와 3백63달러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밖에 몬테카를로(3백59달러), 런던(3백52달러), 브뤼셀(3백31달러), 모스크바(3백27달러)등이 서울보다 호텔 값이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96년호에선 친절이 42위, 택시 잡기 43위, 물가-경치는 36위, 야간유흥에는31위로 나타났으며 세계 여행자들에게 서울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로 낙인 찍혔다. 이 조사는 한해동안 20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46개국 중에서 서울이 종합평가39위에 올랐다. 94년에는 31위, 95년에는 35위였는데 이제는 40위권 가까이 왔다. 지금은40위권 밖일지도 모른다. 도시의 여건을 12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한 부분도 30~40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42위인 것은 베이징 40위 상하이 41위 다카(방글라데시) 39위 보다 나빴고 택시 잡기는 베트남 호치민 (42위), 인도의 봄베이 (33)위나 델리 (41)위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관광객들은 서울이 종일 교통체증(37위)에 시달리고 관광(37위)할만한 것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37위) 하 기에도 상하이(36위)나 자카르타(34위) 카트만두(33위 네팔)보다 사정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식사할 만 한곳도 호치민(33위)과 광주(35위) 아부다비(36위 아랍에미리트연합)보다 더 변변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기(34위)도 나쁘고 도시경관(36위)도 볼 것 없다고 했다. 가이드 없이 안내판(35위)만 보고서는 길을 잃기 쉽고 쇼핑의 질(34위)은 자카르타(33위) 카트만두(36위)와 비슷했다 이렇게 보잘것없으면서도 물가(36위)는 로마(37위)나 프랑크푸르트(38위)같은 선진국 도시들과 비슷했다. 이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볼 것도 없고 돈만 많이 드는 오고 싶지 않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그나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유흥이었는데 그것마저 31위였다. 이러하다보니까 우리 나라는 세계최악의 나라10개국에 들었다.

3. 현재 우리 나라관광의 문제점

96년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인인 368만 여명으로 95년보다 1.8%가 줄었다. 전년도에 비해 입국 외국인이 줄어 든 것은 80년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 내국인 출국자는 465만 명으로 95년보다 21.7% 늘었다. 관광수지는 수입 54억1,900만 달러, 지출 69억7,000만 달러로 15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관광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세계관광객은 지난해 5억9,000만 명으로95년에 비해 3,000만 명이 늘어났고 관광수입도 3,932억달러에서 4,200억 30만 달러로 7.5% 증가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 95년 8,300만 명에서 8,900만 명으로 7.9% 불어났고 관광수입도 727억달러에서 822억달러로 13% 많아졌다. 세계관광산업의 호황 속에서 우리 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국내 관광산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일깨워준다. 우리 나라 관광산업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해외관광과소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는 적은데 경비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울에서 경복궁 비원 등을 처음 보았을 때 독특한 건축양식에 매료돼 ” 역시 5천년의 전통을 가진 나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다른 고궁과 경주를 돌아보고 난 뒤에는 모두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대했던 문화축제나 전통놀이를 볼 수 없어 실망했습니다” 미국인 라스새더(39)씨가 털어놓은 한국관광 소감이다. 그는 “도시국가라고 해야 할 싱가포르나 홍콩도 놀이와 이벤트가 워낙 많아 고르는데 애를 먹을 정도인

데 관광자원이 훨씬 풍부한 한국에 볼거리가 이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영국인 행크 스코트(47)씨는 “골프를 치기 위해 가이드에게 부킹을 부탁했더니 ” 여

행중 골프는 전례도 없거니와 한국사람도 부킹이 쉽지않다고 “ 거절하더라” 며 “일본이나 광둥지에서는 손쉽게 골프를 즐겼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국내 물가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비싸다. 96년 WTO가 조사한 세계 주요도시 1일 체재비 비교자료를 보면 서울은 395달러로 모스크바도쿄(동경)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7번째였다. 또 96년 8월 홍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는 146달러로 도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서울 이태원상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내서비스나 관련인원 부족 등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96년말 외국인 관광객 900명을 대상으로 여행중 불편했던 점을 물은 결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간지체” 가 16. 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영어소통 장애” 12.9%, “영어표지판 미비” 10.9%, “영문 관광정보 및 안내책자 부족” 8.4% 등의 순이었다. 경남 진주에 머물렀던 영국인 마이클 하워드씨는 “호텔의 전화교환원이 영어를 못해 방에서는 영국으로 전화를 할 수 없어 로비의 공중전화를 사용해야만 했다” 면서 “호텔에는 영어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돌아 다녀야 할 지 막막했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전국 91개소로 프랑스의 5,000개, 영국의 750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중 하나는 “영어소통장애” 와 “영어표지판 부족” 으로 나타났다. 97년한국을 찾은 호주인 마허씨는 일행3명은 지도한 장으로 서울여행을 하려고 했던 배낭족이다. 처음문제는 김포공항국제선 청사 입국 장에는 영어로 된 출입국카드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있어 큰 불편이 있었다. 또 “HELP DESK” 에는 영문 출입국카드가 없고 직원도 한 명도 없어 힘들었다고 한다. 또 공항 택시승강장에서 “ㅇㅇ여관이 어디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요금은 얼마냐?” 고 물었으나 택시기사는 “생큐” 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외국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영어 소통이 안되면 안내책자와 표지판이 많아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관광안내소가 91개 밖에 없다. 그나마 있는 관광안내부스도 2~5평크기의 소규모가 대부분이고 1평짜리 관광안내부스도 많다. 그나마 있는 관광안내부스의 안내원 중 전체 200명중 30% 밖에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어 기막힐 노릇이다. 또 관광안내소 역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아서 “관광안내소 찾기가 관광지 찾기보다 더 어렵다” 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으며 한 관광부스에서 다른 곳의 관광안내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전국안내소간의 연결도 미흡한 상태이다. 관광안내소 운영이 통일이 안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96년말에 서울, 부산, 경주등 국내관광지 5곳의 관광안내체계를 현장 조사한 세계관광기구(WTO)기술자문단도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문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 3분의 2가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인데 한자로 된 안내표지판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그나마 있는 관광지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

4. 한국전문가들의 우리 나라 관광 분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인 이경문씨는 요즘 들어 관광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계 등에서도 “한국관광이 큰일 났구나”하는 걱정이 태산같다.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 수는 6억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관광회의(PATA) 총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가간 쌍방관광이 이뤄져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PATA 총회가 열린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관광에 매달린 느낌이였다. 제2공항 건설에서부터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건립, PATA 아시아

지역 본부 유치, 도로, 항만 건설, 관광명소 개발등 국토발전 계획을 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집 하나, 다리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부응하면서 볼거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지난해 외래관광객은 700만 명으로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유리한 입지조건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관광객유치를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등 다민족이 혼재한 여건을 활용 "싱가포르 뉴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문화를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음식, 축제, 차이나타운 건설등 민족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나이트 사파리등 야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상하의 열대기후를 살려 골프장을 개설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인도네시아 섬까지 빌려 카지노를 개설, 관광객유치를 꾀하고,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도 관광청에서 실시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연결한 크루즈여행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고물과 비싼 숙박비에다 시설부족, 교통불편, 안내체계 부실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관광은 우선 가격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이는 돈 쓰는 재미로 여행한다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공료 호텔교통비 음식값 등이 싸야 가보고 싶은 매력을 느낀다. 다음은 편리함이다. 비행기나 택시 타기, 숙박시설과 관광안내들이 편리하게 주선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또 볼거리의 문제다. 우리는 풍부한 볼거리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잘 정돈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관광은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국민 모두의 관광마인드가 중요하다. 또 관광은 국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아름답게 건설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도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외국어를 병기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88올림픽 때일시 은전처럼 베풀어졌던 규제완화 금융지원등의 관광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김성배 한진 관광 부회장의 인터뷰이다. "한번 찾은 손님은 다시 찾게 해야죠"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별로 없는 데다가 경쟁국보다 비싼 물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고전을 겪은 것은 한진 관광도 마찬가지. 실제 한진 관광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아픔을 느꼈다. 이벤트성 상품과 계절성 상품등 기존의 관광지 견학 수준의 틀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관광객에게 여행사를 믿고 자신의 일정을 맡기는 신뢰감을 쌓는 데도 노력했다. "호텔비등 체제비가 비싼 데다 상품마저 빈약합니다. 그런 데도 난립한 군소 여행사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 덤핑을 일삼고 있으니, 관광업계에 같이 몸담은 사람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부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를 이러한 업계의 현실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한국관광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찾도록 만들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요금을 받는 등 먼저 업계가 개혁을 해야합니다. 현재 상태로 제살까아먹기식 사업만 하다보면 모두가 망하고 맙니다" 김부회장은 "일본은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어 여행상품 값이 업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며 "적정요금제가 정착 되면 개별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고 강조한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관광업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다른 관계부처들도 한국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인다. "외국관광객의 불만중 체제비가 많이 듭니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편인 데 대부분 주머니사정이

별로 좋지 들 않지요. 중국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보내려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김부회장은 "체제비중 호텔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제지원을 해서라도 호텔 비를 낮추어야 합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특급호텔보다 2~3급 호텔이나 장급, 여관을 선호하는 중국인이나 동남아 그리고 대만인 들을 위해 이들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국인들도 부킹이 안 되는 실정에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힘들다.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관광홍보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조차 홍보를 잘 안 하는데 해외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제대로 먼저 알려야 하는데 사실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며 정부나 관광공사가 관광한국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는 또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관광의 저변이 커지고 튼튼해진다는 뜻에서이다. "모든 면에서 하자 없는 상품으로 외국인관광객 모시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부회장은 한국을 한번 다녀간 외국인은 다시 이 땅을 찾거나 한국관광의 메신저가 되도록 하는 데 정부나 업계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5. 관광이 주는 이익

21c에 가장 유망한 “굴뚝 없는 무공해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다. WTO(세계관광기구) 분석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외화가득률이 82.8%로 63.5%인 수출산업 보다 훨씬 높다. 또 부가가치율이 50%에 육박하는 최대의 부가가치 생산산업이다. 이는 제조업(22.9%)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원가 중 재료비의 비율이 제조업(72.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에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왜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 보다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었을까? 좀더 자세히 보면 만약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을 자기 나라에서 한국산 제품에 주요 고객이 되는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부가가치말고도 96년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1명이 평균 1천4백74달러를 쓰고 갔는데 이것은 신발105켤레, 칼라 T. V 11.5대 수출하는 효과를 지닌다. 6명만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면 소형 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지닌다. 물건을 수출시키려고 새로운 기자재나 부품 수입하느라고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다른 경제대국 나라들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이다.

결론

1. 우리 나라의 방안

우리나라도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많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관광 부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은 관광종합지원단구성, 숙박대책수립, 월드컵관광코스 개발 및 판매, 해외홍보 활동 국내 수용태세 개선 등이 있고 97년 발간한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관광가격의 경쟁력 제고 =외래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관광을 할 때 지출하는 비용중 호텔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97년 국제적인 조사통계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호텔 1일 평균 체재비용은 전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

서도 높은물가국으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객유치증대에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상품가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호텔가격의 안정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관광호텔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일부 세제와 부담금 제도를 조속히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영업규제 등을 완화시켜 호텔이용가격의 인상요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경제여건상 관광호텔 이용가격의 인상을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면 가격의 인상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외국의 한국상품 취급 여행사들에 미리 통보해주는 제도(가칭 "관광호텔가격 사전예시제")를 도입해 관련 사업자단체가 앞장서서 홍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단 예시된 가격은 약속된 기간중 불시에 인상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2-매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국내 여행업계는 심층적인 시장조사연구와 창의적인 관광상품 개발활동이 미약해 외래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적시에 개발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관광상품개발과 판촉업무를 지원하는 민관합동조직(가칭 "관광상품기획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부나 한국관광공사내에 실무조직인 상품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밑에 "신상품개발 마케팅 가격"관련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광업계가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상품을 다수 개발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소요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재원은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사업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외래관광객유치촉진용예산(가칭 "외래관광객 유치촉진협력예산")을 별도로 설정,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국내여행업체의 인바운드업무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한사람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외화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수출할 때와 비교해서 몇 배나 큰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간 국내 여행업계에 인바운드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현재 국내여행업계는 돈벌이가 되는 아웃바운드업무에 치중해 인바운드업무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유치증대를 위해서는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우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 바운드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대출 보조금 및 특별보상금 지급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계의 신관광상품개발 및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시장조사비 상품개발비 광고선전비 기타 유치활동비)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앞서 제안한 가칭 "외래관광객 유치촉진 협력예산"을 활용해 지원해주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4- 국민의 친절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외국인관광객들이 한국을 재방문하도록 하려면 한국을 관광하고 난 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전통적인 정서에서 탈피,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등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2.나의 생각

정말 누구나 우리나라의 관광을 걱정하고 공부조금만 한사람이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만큼 쉽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여행을 줄여서 관광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보다는 확실히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낫다. 계속 나오는 안내표지판의 영어표기문을 제대로 하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관광 상품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한 부서에서 관광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따로 연결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유물들을 책자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공항이나 안내소에 배치하고 우리나라국민들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절도를 높이고 정부도 돈벌이의 중심을 관광 산업 쪽에 두는 것이다.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아니 나라의 손님이니까 더욱 친절하게 대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자비한 개발에서 오는 피해와 현대의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들.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관광의 문제들을 알고 파악 하고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것을 고쳐내지 못할까? 정말 관광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재미있게 우리나라를 관광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돈 들어가도 미래를 보자. 5년정도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외국을 분석하고 좋은 것을 모방하고 우리나라를 분석해서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것을 개발, 상품화한다면 곧 엄청난 이익을 볼 것 같다.

정말 이것을 하면서 우리나라관광의 문제들을 자세히 알았다. 나도 외국인들을 보면 친절히 대해주고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안내도 해주어야겠다. 논문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사회 시간에 했던 보고서 같다.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의 실력이다. 이 정도에 나중에 언젠가 다시 쓸 기회가 있다면(중.고등학교때)좀더 오랜시간동안 준비해서 논문 같은 논문을 쓰고싶다. 로마에 갔을 때들은 이야긴데 아빠가 “니가 걷고있는 이 길이 로마제국시대 때의 길이다. 몇천년된 길이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며 길을 걸으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한국의 관광형태를 바란다.

참고문헌: 인터넷으로 다운받음. 자료가 있는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TV를 비롯한 전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베네통을 대신 광고해 주고 있는데, 따로 돈을 들여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베네통이 새로운 광고를 하나 발표하면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에 대해 언론은 앞을 다투어 보도한다. 기자가 논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 화면에는 어김없이 그 문제의 광고가 비추어진다. 심지어 베네통 광고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방송하기도 한다. 언론도 이것이 사실상의 광고가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베네통으로부터 따로 뒷돈을 챙기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 속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늘 ‘꺼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글조차, 크지는 않겠지만 베네통을 광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20세기의 이탈리아의 기적.

무모하게만 보이던 16살이 흔히 ‘20세기 이탈리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기적을 만들었다.

베네통이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고작(?) 1천 1백억원에 불과했다.(98년 기준) 1천 1백억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해 지출하는 ‘국내’ 광고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베네통은 이런 소지출로도 한해 ‘옷만’ 팔아 2조 8000억원의 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나는 베네통이라는 회사를 이 위치에 올려 놓은 것은 끊임없는 파격과 도전정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빚어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문화적 흐름에 함께 하고 나아가 그 문화를 리더할 수 있는 강한 힘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베네통의 광고를 살펴보자. 무엇이 기존의 많은 기업들의 광고와는 차별화 된다고 하는 것일까? 베네통은 자신들의 ‘제품’을 선진하지 않는 대신 일련의 사회적인 ‘이슈’를 만듦으로써 자신들을 알렸다. 그러나 이런 광고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순수, 돈 만을 위한 상업적인 전략일 뿐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높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하는 의류회사인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베네통의 광고는 분명 플러스 알파의 작용을 한다. 그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란 쉽게 다가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베네통의 광고주제는 고민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녀와 신부의 키스신에도 관대하게 될 수 있었듯이. 즉, 베네통사의 전략에 소비자가 ‘먹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나의 생각이다. 소비자 베네통사와의 상호작용. 이것보다 더 알맞은 말은 없을 것 같다.

이렇듯이 베네통의 이야기에서는 [상업성]과 [철학, 예술] 이 두개 중 하나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융합.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 많은 시행착오 거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베네통이라는 거대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루치아노 베네통이 말한 ‘짧은 정신’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위기와 여러상황 속에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삶.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되 전통이 있는 옛 것과 상실되기에 아까운 것들을 지켜 낼 수 있는 가치관의 힘. 그 것의 중요함. 내가 베네통을 연구하며 배운 것이다.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이루려는 목표보다 과정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논문을 끝마치며 나는 더 많은 베네통 자료를 찾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고 속에서도 결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빠트리지 않는 토스카니도 존경스럽다. 그와 루치아노 베네통에게 감사한다.

[참고문헌]

- 이기원, <아이디어로 산다>
- 중앙일보, 1996년 12월 25일, 27면
- 조희천, <파격승부“무조건 된다: 이탈리아 베네통> 조선일보 1999년 7월 16일, 13면
- 박기영,<영 여왕 등 피부색 바꾼 베네통 광고화제>조선일보 1993년 4월 16일, 21면
- 최준석,<충격광고 유명 베네통사 새 작품; ‘유대인-아랍인 화합’ 주제> 조선일보 1997년 9월 26일, 9면
- 백지숙,<베네통 광고 색깔 읽는 법> 사회평론길 1993년 11월 183쪽

졸업 논문

주제 : 간디인의 자율과 책임

이름 : 이장원

담당 선생님 : 이수광

학년 : 중학교 3학년

=====
=====
=====

목차

1.서론-> ①주제 선정 이유

②연구방법...

2.본론-> ①자율이란 무엇인가?

②설문지 조사내용

-->중2,중3,고1..^^

③설문지 내용 정리

3.결론-> ①간디 학교의 자율성 실태(최종 정리)

②우리학교 자율성, 자발성 교육의 방향...!!!(내의견)

=====
=====

간디인의 자율과 책임

※서론

◎주제선정 이유

제가 이주제로 정한 목적은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얼마나 실천되어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느끼는지 또한 얼마나 책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설문지 형식으로 전학년에게(105 명) 설문지를 돌렸지만 그중 응답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론

◎자율이란 무엇인가?

자율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행동을 억제함, 실천 이성이 스스로 보편적 도덕률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 ...이다.

하지만 나는 간디의 자율에 대해 특별히 생각한다. 간디인 만의 문화 ,간디인 만의 혜택, 또한 간디인의 철학으로 생각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간디에는 자율이나 믿음, 또한 책임의식을 보기 힘들다. 왜일까? 모두가 나처럼 느낄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리고 학교의 취지가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인 만큼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전교생중 응답자 74명에게 물어봤다.

◎각 학년의 조사 결과

(중학교1학년)

1)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 있는가? (응답자 18명중)

①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0%

②잘 보장되어 있다..... 38.9%

- ③보통이다..... 50%
- ④보장의 정도가 낮다..... 11.1%
- ⑤보장되지 않았다..... 0%

2)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을 느끼는가?(응답자 18명중)

- 교과활동 ==>수업방식, 수강신청
- 기숙사 생활=>자율적인 규칙 정하기와 지키기, 묵학시간
- 과외활동 ==>자유시간, 동아리
- 기타 ==>악기 다루기, 동아리활동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83.3%

3)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느끼는가??? (응답자 18명중)

- 교과활동 ==> 수업진행
- 기숙사 생활=>조금 갑갑하다, 학생의견이 잘 반영 안됨, 묵학시간
- 과외활동 ==>전산실사용
- 기타 ==>동아리활동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88.9%

4)왜 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총18명응답)

-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50%
-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33.3%
- 자율적인 행동의 보장은 생활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0%
- 잘 모르겠다 16.7%
- 자율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0%

5)우리학교에서 허용하는 '자율성' 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 단점- 아이들이 자율과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41.9%
- 책임감이 없다,22.6%
- 생활이 무질서하다,19.4%
- 아직 간디학교 자율에는 기본적인 틀이 없다.12.9%
- 잘 모르겠다.0.3%
- 기타 0.0%

- 장점- 자유롭다.29.0%
-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9.7%
- 분위기가 자유롭다.25.8%
- 마음이 편하다.16.1%
- 잘 모르겠다.19.4%
- 기타.0%

6)간디인들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 ①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5.6%
- ② 책임의식이 높은 편이다. 5.6%
- ③ 보통이다. 50%
- ④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22.2%
- ⑤ 전혀 신경 안 쓴다. 16.7%
- 기타 0%

7)간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 어떠한 자세가 요구 되어 한다고 생각하나???

- 규칙존중13.6%
- 책임의식 36.4%
- 말보다 실천45.5%
- 참여성0%
- 공동체의식 4.5%
- 기타 0%

(중학교2학년)

1)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 있는가? (응답자 17명중)

- ①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0%
- ②잘 보장되어 있다..... 52.9%
- ③보통이다..... 47.1%
- ④보장의 정도가 낮다..... 0%
- ⑤보장되지 않았다..... 0%

2)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을 느끼는가?(응답자 17명중)

- 교과활동 ==>자율적 수업방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한다. 원하는 과목선택
- 기숙사 생활=>
- 과외활동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
- 기타 ==>복장, 머리
-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70.5%

3)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 되지 않음을 느끼는가??? (응답자 17명중)

- 교과활동 ==>
- 기숙사 생활=>여러 가지 규정, 시간표처럼 짜인 생활
- 과외활동 ==>동아리, 자유시간
- 기타 시설 등이 부족
-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76.5%

4) 왜 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총17명 응답)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47.1%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41.2%

자율적인 행동의 보장은 생활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5.9%

잘 모르겠다 5.9%

자율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0%

5) 우리학교에서 허용하는 '자율성' 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단점- 아이들이 자율과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41.9%

책임감이 없다,32.2%

생활이 무질서하다,16.1%

아직 간디학교 자율에는 기본적인 틀이 없다.3.2%

잘 모르겠다.6.5%

기타 0.0%

장점- 자유롭다.27.8%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25%

분위기가 자유롭다.19.4%

마음이 편하다.25%

잘 모르겠다.2.8%

기타.0%

6) 간디인들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①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0%

② 책임의식이 높은 편이다. 11.1%

③ 보통이다. 33.3%

④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44.4%

⑤ 전혀 신경 안 쓴다. 11.1%

기타 0%

7) 간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 어떠한 자세가 요구 되어 한다고 생각하나???

규칙준중 15.6%

책임의식 43.8%

말보다 실천 15.6%

참여성 12.5%

공동체의식 9.4%

기타 3.1%

(중학교3학년)

1)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 있는가? (응답자 9명중)

- ①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 11.1%
- ②잘 보장되어 있다..... 44.4%
- ③보통이다..... 33.3%
- ④보장의 정도가 낮다..... 11.1%
- ⑤보장되지 않았다..... 0%

2)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을 느끼는가?(응답자 9명중)

- 교과활동 ==>교과선택
- 기숙사 생활=>
- 과외활동 ==>
- 기타 =====>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66.7%

3)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느끼는가??? (응답자 9명중)

- 교과활동 ==>
- 기숙사 생활=>짜여진 시간(취침시간 강제)
- 과외활동 ==>
- 기타 =====>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88.9%

4)왜 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총9명응답)

-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44.4%
-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55.6%
- 자율적인 행동의 보장은 생활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0%
- 잘 모르겠다 0%
- 자율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0%

5)우리학교에서 허용하는 '자율성' 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 단점- 아이들이 자율과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29.4%
- 책임감이 없다,35.3%
- 생활이 무질서하다,17.6%
- 아직 간디학교 자율에는 기본적인 틀이 없다.5.9%
- 잘 모르겠다.5.9%
- 기타 5.9%

장점- 자유롭다.16.7%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33.3%
 분위기가 자유롭다.33.3%
 마음이 편하다.11.1%
 잘 모르겠다.5.6%
 기타.0%

6)간디인 들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①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0%
 ② 책임의식이 높은 편이다. 0%
 ③ 보통이다. 25%
 ④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75%
 ⑤ 전혀 신경 안 쓴다. 0%
 기타 0%

7)간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 어떠한 자세가 요구 되어 한다고 생각하나???

규칙준중 4.2%
 책임의식 20.8%
 말보다 실천 16.7%
 참여성 12.5%
 공동체의식 20.8%
 기타 0%

(고등학교1학년)

1)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 있는가? (응답자 14명중)

① 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7.1%
 ② 잘 보장되어 있다..... 64.3%
 ③ 보통이다..... 14.3%
 ④ 보장의 정도가 낮다..... 14.3%
 ⑤ 보장되지 않았다..... 0%

2)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을 느끼는가?(응답자 18명중)

교과활동 ==>교과선택,
 기숙사 생활=>
 과외활동 ==>
 기타 =====>
 ㊸(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38.5%

3)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느끼는가??? (응답자 13명중)
 교과활동 ==>필수과목 수강, 수업참석요구, 수강신청에 대한 책임부족일때
 기숙사 생활=>기호식품, 지켜야할 무수한 시간표, 너무 많은 규칙
 과외활동 ==>배우는 것이 너무 적다(농사, 탈춤)
 기타 =====>담배, 술, 외출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61.5%

4)왜 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총18명응답)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53.8%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38.5%
 자율적인 행동의 보장은 생활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0%
 잘 모르겠다 0%
 자율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7.7%

5)우리학교에서 허용하는 '자율성' 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단점- 아이들이 자율과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29.2%
 책임감이 없다,33.3%
 생활이 무질서하다,16.7%
 아직 간디학교 자율에는 기본적인 틀이 없다.16.7%
 잘 모르겠다.0%
 기타 4.2%

장점- 자유롭다.26.1%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21.8%
 분위기가 자유롭다.30.4%
 마음이 편하다.21.7%
 잘 모르겠다.0%
 기타.0%

6)간디인들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①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0%
 ② 책임의식이 높은 편이다. 7.7%
 ③ 보통이다. 30.8%
 ④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53.8%
 ⑤ 전혀 신경 안 쓴다. 7.7%
 기타 0%

7)간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 어떠한 자세가 요구 되어 한다고 생각하나???

규칙존중 10.3%

책임의식 34.5%

말보다 실천 24.1%

참여성 17.2%

공동체의식 13.8%

기타 0%

(고등학교2학년)

1)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 있는가? (응답자 8명중)

① 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0%

② 잘 보장되어 있다..... 75%

③ 보통이다..... 12.5%

④ 보장의 정도가 낮다..... 12.5%

⑤ 보장되지 않았다..... 0%

2)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을 느끼는가?(응답자 12명중)

교과활동 ==>교과선택, 수업방식, 선생님과 의 자유로운 토론,자유로운자세

자율적인 수업진행

기숙사 생활=>자율적인 규칙 정하기와 지키기, 개인시간

과외활동 ==> 동아리

기타 =====>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66.7%

3)어떤 상황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느끼는가??? (응답자12명중)

교과활동 ==>

기숙사 생활=>너무 짜여진 생활, 타인으로 피해볼때

과외활동 ==>동아리, 자유시간

기타 =====>담배

ⓧ(없다or못 느낀다or 잘 모르겠다)가 58.3%

4)왜 간디인들 에게는 자율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총10명 응답)

간디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20%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80%

자율적인 행동의 보장은 생활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0%

잘 모르겠다 0%

자율적인 행동은 필요 없다 0%

5)우리학교에서 허용하는 '자율성' 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단점- 아이들이 자율과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35.3%

책임감이 없다,41.1%

생활이 무질서하다,11.8%

아직 간디학교 자율에는 기본적인 틀이 없다.5.9%

잘 모르겠다.0%

기타 5.9%

장점- 자유롭다.27.8%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33.3%

분위기가 자유롭다.22.2%

마음이 편하다.11.1%

잘 모르겠다.0%

기타.5.6%

6)간디인 들은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①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0%

② 책임의식이 높은 편이다. 9.1%

③ 보통이다. 9.1%

④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63.6%

⑤ 전혀 신경 안 쓴다. 9.1%

기타 9.1%

7)간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 어떠한 자세가 요구 되어 한다고 생각하나???

규칙존중14.3%

책임의식 33.3%

말보다 실천28.6%

참여성9.5%

공동체의식 9.5%

기타 4.8%

◎설문지 조사 내용 정리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성에 보장정도를 잘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보통이다 또는 보장이 잘 안됐다 라고 했다 왜 그럴까? 자율성을 제일로 꼽는 학교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2번 문항에 눈을 돌렸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율성이 있음을 느끼는가?

난 여기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 바로 우리학교 자율성의 한계이다. 묵학시간, 자유시간, 동아리활동, 아침기상, 수강신청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더 이상 자율성이 보장되었는 부분이 없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율이 아닌 타율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타율..자유학교에선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지만 이 타율이란 말이 나온 데에는 학생들의 책임이 더 크다.

4번 문항을 보자 왜 자율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취지가 그렇다' 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율적인 생활을 취하려 하는 노력이 적을 뿐더러 학교에서 보장해준 몇 가지 자유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스스로 자율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3번 문항을 보자 어느 부분에서 학생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는가? 예선 강제적인 수업참석요구, 술, 담배 등의 금지, 시설부족 등을 꼽았는데 이중 담배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걸 학교에 떳떳하게 말하고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수업참석 요구에 불만이 있다면 그 담당 선생님께 가서 오늘 수업을 듣기 싫다 또는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 라는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 우리에게 보장된 자율에 대해선 어떻게 느낄까?

5번 문항을 보자 장점과 단점.. 단점은 책임감이 없다 배려를 하지 안는다등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장점은 모르겠다, 자유롭다 등 미적미적한 대답뿐이었다. 왜 그럴까 왜 보장돼있는 자율에도 만족 못하고 많은 단점을 지적하며 장점에 대해선 대답이 미적미적 할까? 난 답을 6번 문항 우리에게 책임의식이 있는가?? 에서 찾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갖지 안는다' 라고 답했다.

여기서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장점이 없는 자율? 이것이 간디학교 자율의 문제점인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책임의식이 갖춰있지 않다 라고 지적한 점에는 이런 내용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자유는 자율+책임....이러한 걸로 봤을 때 간디의 자율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간디의 자율은 절망적이기만 할까??? 아니다 7번 문항을 보면 간디의 문화(간디의 자율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에서 간디인 들은 거의 모두가 책임의식 즉 배려를 뽑았다. 책임의식.. 간디인들 에게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작은 배려 이 작은 배려 하나면 간디의 자율의 문제점은 거의 해소된다 이제 남은 것은 간디인 들의 의지, 간디인 들의 배려다 이것만이라도 신경을 써준다면 간디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간디학교의 자율성 실태

이제 앞의 내용 등을 정리해 보자. 나는 이 학교가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얼마나 실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논문을 썼다. 내가 논문을 쓰면서 알고 싶은 부분도 알게 되었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다. 알고 싶었던 부분은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면서 간디학교에 자율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와중에 나는 이 학교에 자율의 자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필시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하지만 간디인이 행사하는 자율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이 뒷받침 돼있지 않았다. 이에 간디인 들이 동의 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다. 조사결과는 많은 간디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되었다. 간디학교 자율의 한계 바로 자율성의 다양성 부족이었다.

◎우리학교의 자발성의 발전 방향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 간디는 자율성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지만 우리 간디 인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곧 최고의 학교로 발전 할 것이다...

졸업논문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 풍물과 사물놀이의 차이점

발표자:임수근

목차

서론 내가 왜 풍물과 사물놀이의 차이점을 이란주제를 정했는지...

조사방법 등등

본론 풍물의 이해

1. 풍물이란

2. 풍물의 역사

(1) 풍물의 기원

3. 풍물의 악기

사물놀이 이해

1. 사물의 이해

2. 사물놀이의 기원과 이해

3. 사물놀이의 원리

(1) 긴장과 이완의 원리

(2) 음향 조화의 원리

4. 사물놀이의 악기

사물놀이와 풍물의 비교

(1) 탄생시기

(2) 연주형태

(3) 장르구분

(4) 음악적 특징

(5) 연주시간

(6) 연주 인원

결론 느낌점등...

서론

저가 왜 풍물과 사물놀이의 차이점이란 주제를 정했나면...
제가 언제 사람들에게 풍물과 사물놀이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더군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 몰랐던것을...외국 사람들은 다 알더군요...
저는 그래서 풍물과 사물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인 풍물과 사물놀이에 대해
잘 몰라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생각 해보기 위해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본론

풍물의 이해

1. 풍물이란

풍물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락이며 예능으로 일종의 집단 가무이다. 풍물은 어느 특정 계급이나 인간의 예능이라기보다는 서민 전체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예능이며 생활이다.

풍물은 원시사회이래 민중의 생활과 노동의 리듬으로 형성된 집단적이 행동 양식의 표출이다. 따라서 풍물은 생산이나 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풍물은 단순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눈요깃거리는 결코 아니며 한테 어울려 노는 집단적 대동놀이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풍물은 가락을 통한 흥만이 아니라 당산굿에서 보이는 기원의식, 지신밟기에서의 덕담, 고사소리, 판굿에서 보이는 춤, 진풀이, 노래굿, 잡색 놀이로서의 연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표현 매체라 할 수 있다.

풍물은 공동체적 집단을 전제로 하고 그 집단이 자신의 생활 한복판에서 삶을 위하여 표현하는 독자적인 표현장르로서 그 안에는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등의 장르가 종합적으로 스며있는 예술이며 나아가서는 생활 그 자체이다

즉 풍물은 생활 속의 놀이이며 생산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전통시대 풍물의 사회적 기능은 첫째,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즐거운 노동이 되게 하였다. 둘째,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고 사람들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더 나은 생활이 되게 하였다. 셋째,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안락의 적들을 몰아내는 힘이 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풍물의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맞게 적용하며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 풍물의 역사

(1) 풍물의 기원

풍물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풍농, 안택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이나 노동의 율동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집단 생활 속에서 놀이형태, 축원형태, 연주형태를 만들고 이를 즐기게 된 것으로 본다. 원시 시대의 제천의식 또는 집단적 염원을 비는 제의 형태는 아직 종교적 의식을 주체하고 대행해 줄 무당이 나타나기 이전이므로 집단적 신명을 통해 신과 만나고 역시 집단적으로 기원하는 형태이므로 풍물의 원시적 형태로써의 집단 춤과 간단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타악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것이 점차로 발전하여 오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추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풍물에서의 악기와 연희형태 중에는 불교에서 전해진 것이 많은데 이런 악기와 연희 형태가 기층민중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조선시대이며, 풍물이 농촌의 두레 공동체와 함께 성장

해은 것으로 볼 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학자들간에 풍물의 기원을 설명한 것으로는 풍농안택 기원설, 군악설, 불교 관계설 등이 있는데 이들은 풍물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풍물이 현재까지의 모습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풍농안택 기원설

농경사회에 있어서 집단적인 염원은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탈이 없기를 바라고 집단적 신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필요했던 음악과 춤을 풍물의 역사적 형태로 보는 것이다.

② 불교 관계설

조선시대 이후 불교의 탄압과 함께 각 사찰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자 절을 세우거나 중요한 불교행사가 있을 때 불교 음악이나 의식 춤에서 나오는 연희형태를 가지고 민간에 내려와 다니면서 자금을 얻어갔다. 그러면서 불교음악과 의식 춤에서 악기, 장단, 연희 형태들 중에서 기층민의 미의식에 알맞은 형태들을 풍물에 도입하고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도 풍물에서 소고는 범고라고 한다든지 고깔을 쓰고 연희한다든지 악기로써 바라를 사용하는 것 등은 이러한 불교의 영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③ 군악설

농경시대 변방을 수비하거나 기타 군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일종의 예비군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풍물패의 복색이나 지휘체계 등은 군대의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농민들은 놀이 속에서 군악의 체계를 이용했으리라는 것이다. 풍물이 일상불란한 짜임과 힘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3. 풍물의 악기

① 쟁과리

쟁과리는 쇠, 광쇠, 팽과, 팽매기, 소금, 동고, 쟁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흔히 쟁과리를 치는 사람을 쇠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서 쇠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는데 상쇠는 풍물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쟁과리는 낫쇠로 만들며 직경이 21cm(7치), 둘레 부분은 높이가 3.6cm(1치6푼)이다. 음색에 따라 솟쟁과리 암쟁과리로 구분되는데 솟쟁과리는 소리가 야물고 높으며 암쟁과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얇다, 솟쇠와 암쇠가 서로 받아치며 하는 놀이는 마치 암새와 솟새가 서로 화답하는 듯 화음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장구와 아울러 율동악기로서 으뜸인데 예전에는 군악과 제례악에도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풍물에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가락으로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을 돋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징

낫쇠로 만드는 타악기의 하나로 본래의 소리는 '징'이나 '징'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옛 군악인 고취악에서 사용된 까닭으로 고취징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 밖에 나, 금라, 금 등의 이름이 있다. 사용범위는 넓어서 취타를 비롯한 무악과 풍물등에 사용되며 절에서도 사용된다. 전남대학교 호남 문화 연구회 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 징으로 보아 징의 역사는 고려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며, 그 사용의 단순함으로 볼 때 쟁과리보다 먼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징은 원박을 정확히 쳐주는 것이 중요하며 가락을 전부 감싸서 멀리 울려 퍼지게 한다. 악기들 중에서 가장 은은한 소리를 내며 포용력 있는 악기라 할 수 있다.

③ 장구

가죽 타악기의 하나로 양편 머리가 크고 그 허리가 가늘다 하여 세우고라고도 한다. 좌편(북편, 공편)은 흰 말가죽이나 소가죽을 대어 가죽이 좀 두껍고 소리가 낮으며 우편(채편)은 보통 말가죽을 대어 가죽이 얇고 높은 소리를 낸다. 가죽으로는 개가죽이 소리도 크고 제일 좋다. 장구의 통은 사기, 기와, 쇠, 나무, 양철등을 쓰는데 보통 미루나무와 오동나무를 많이 쓰고 오동나무가 무게도 가벼우며 소리도 좋은 편이다. 원측 둘레에 여덟 개의 쇠고리를 걸어 무명을 꼬아 만든 줄(숫바, 축승)로 엮어매고 축수(뿔줄,부전)는 좌우로 움직여 소리를 조절한다. 중국에서는 당나라부터 쓰였으며 우리 나라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처음에는 궁중음악에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민간에도 널리 사용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가 되었다. 장구는 처음에 향악, 당악에 쓰였으며 지금은 정악, 산조, 잡기 민요, 풍물, 무악 등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장구의 채로는 궁채(궁글채)와 열채(가락채)가 있고 궁채

는 대나무 뿌리를 삶아서 똑바로 편 다음 끝부분에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 또는 뿔을 끼워서 만들고 열채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양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장 변화무쌍한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④ 북

북은 그 구조가 간단한 이유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또 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 발생을 볼 수 있으며 각 민족의 특징을 지닌 것들이 발달했다. 고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오는 데 풍물의 악기 중에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 그 이유는 청동기시대 이전의 목축시대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로 된 악기이기 때문이다.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의 중앙을 파내고 양편에 쇠가죽이나 말가죽을 대어 만든다. 북놀음이나 북가락은 경상도 지방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⑤ 소고

풍물에 쓰이는 작은 북을 소고라 하며 다른 이름으로 범고 매구북이라고 한다. 지금의 소고는 모두 손잡이가 달려 있지만 옛날에는 손잡이가 없었으며 오늘날의 것보다 훨씬 커서 소고잡이들이 치는 소리로 다른 풍물악기에 못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의 소고는 크기가 작아지고 얇은 가죽으로 매어지며 가벼워서 매 장단 첫 박에 한 번씩 치며 춤추기도 하고 원박만 치나기도 한다 소고잡이들은 상모나 고깔을 쓰는데 전라도와 강원도에서는 고깔을 쓰고 전라좌도와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상모를 쓴다. 고깔을 쓰는 경우에는 소고잡이가 멋들어진 춤 솜씨를 보이고 채상모 달린 병거지를 쓰는 경우에는 춤가락과 함께 상모놀이를 벌인다.

⑥ 나발

나발의 길이는 약 3척 8촌이고 2토막 또는 3토막으로 구분된 관을 아래로 밀어 넣어 짧게 꽂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풍물패가 어떤 마을에 들어갈 때(마을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나발을 3번 분 다음에 당산굿을 치고 들어간다) 또는 풍물패를 모아 출발할 때, 기타 신호용으로 많이 쓰인다. 나발을 부는 사람으로서는 상쇠, 설장구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사람이 불면된다. 먼저 일초를 울리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치배꾼들이 준비하라는 뜻이고 이 초를 울리면 모두 집합하여 떠날 차비를 하라는 것이며, 삼초를 울리면 출발을 뜻하는 것이다.

⑦ 태평소

태평소는 날라리, 새납, 호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길이는 약30cm이며 관은 피리와는 달리 원통형이 아니고 원추형이다 관은 유자, 대추, 화양 등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그 아래천 끝은 나발과 같이 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동으로 만들어 붙인다. 한편 혀를 꽂는 상단에도 동으로 만든 동구가 따로 있고 이 동구 끝에다 작은 혀를 꽂는다. 지공(구멍)은 전부 8공이고 그 중에서 제 1공은 뒷면에 있다.

사물놀이의 이해

1. 사물(四物)의 이해

사물이라 함은 단어의 뜻 그대로 네 가지 연장을 말한다. 네 가지 연장이라 함은 곧 쟁과리, 장구, 북, 징이다. 이 연장들이 사물(四物)놀이에서 하고 있는 쓰임새를 보면, 가죽 악기가 금속악기에 종속됨을 알 수 있다. 쇠가 네 가지 연장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세 악기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금속악기가 가죽악기를 이끄는 사례는 세계적 견지에서 볼 때에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사물(四物)은 본디 불교적 용어에서 유래했다. 불교에서의 사물(四物)은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대종(大鐘)을 말한다. 사물(四物)놀이에서의 사물(四物)이란 말이 불교에서 차용되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사물(四物)은 제 각기 구실을 한다. 이 저마다의 구실을 통해 네 악기의 변별적 자질과 조화성을 찾아보아야겠다. 세로축에 쇠와 징을 두고, 가로축에는 장고와 북을 두어보면 네 악기의 차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먼저 세로축과 가로축은 금속악기와 가죽악기라는 점에서 서로 대립한다. 그러나 세로축의 쇠와 징은 이런 공통적 자질을 지녔지만 각기 하는 구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쇠는 리듬을 잘게 자르는 반면에 징은 리듬을 한 무더기로 감싼다. 또 쇠가 리듬을 주도해 가는 반면에 징은 쇠에 종속되어 쇠가 주도하는 것을 도와줄 따름이다. 장고와 북도 마찬가지로 장고가 리듬을 잘게 나누고 북은 장고의 원박을 도와주는 구실을 한다.

사물(四物)놀이는 사물(四物)의 조화로운 화음에서 비롯된다. 뛰어난 잡이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네 가지 악기의 고른 화음이 울려나와야 훌륭한 사물(四物)놀이가 된다. 소리나 가락을 잘게 쪼개는 것은 쟁과리와 장구이다.

정은 장단의 기둥을 세우는 구실을 하고, 북은 장구를 도와서 힘을 넣어주는 구실을 한다. 사물(四物)놀이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들 네 가지 악기를 일터나 제사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악기와 곁으로 들고나와서 신명나는 놀이판을 가졌다. 그러나 그 현상이 급격하게 사라짐에 따라서 실내 연주용으로 개발한 것이 곧 사물(四物)놀이이다. 네명이 쇠, 장구, 북, 징을 들고 나와 앉음반의 형태로 바꾼 것이 오늘날의 사물(四物)놀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물(四物)놀이는 풍물굿에서 생겨난 새로운 자식이다.

이러한 연상은 어디까지나 감각에 의한 것이지만 비교적 악기의 특성을 고루 관련시켰다고 보아진다. 쇠가 쟁쟁 거리는 현상이 천둥, 번개와 흡사하고 징이 지속적 울림을 주는 것은 바람과 유사하며 장고가 갖게 몰아가는 현상이 비와 관련이 있고 동실 대는 소리를 주는 것은 북이니 구름과 비교된다. 즉 사물(四物)이 이런 철학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물(四物)은 곧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네 가지 연장일 될 수 있는 것이다.

2. 사물놀이의 기원과 이해

사물놀이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만든 명칭이다. 사물이라는 말은 절이나 남사당패에서 네 가지 악기를 두루 통칭해서 일컫던 말이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네 명의 연주자들이 실내에서 연주하는 형태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그러므로 1978년 2월 이전으로 소급해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명이 연주하는 풍물굿을 사물놀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사물놀이라는 용어는 심우성이 짓고 김용배,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의 네 명이 함께 연주한 놀이의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은 놀이패에 그치지 않고, 네 개의 타악기인 쟁과리, 장고, 북, 징으로 연주하는 풍물굿을 가르쳐 사물놀이라 일컬음으로써 예술 갈래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되었다.

사물놀이가 예술갈래로 자리잡게 된 것에 앞서 풍물굿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사물놀이를 이해하려면 풍물굿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풍물굿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사물놀이와 풍물굿을 함께 이해할 수는 없으나 사물놀이와 풍물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면 사물놀이의 특징과 정착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덕수패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가짐으로써 탄생하고 지금에 이르러 20여년의 성상을 가진 패거리이다. 완벽한 화음을 구사하고 있으며, 갈수록 세기와 기교가 더해가고 있다. 이들의 구성 내력을 보면 창립단원은 김덕수, 김용배, 최태현, 이종대에서 다시 김덕수, 김용배, 최종실, 최종석으로 재구성된다. 이어서 1979년에 최종석이 이광수로 대체되면서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이 사물놀이를 일약 세계음악으로 정착시킨다.

그들은 가락에 대한 정리, 무속가락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서 그들의 기량을 연마하고 줄곧 해외공연을 하면서 사물놀이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사물놀이의 창립 핵심 멤버인 김용배가 탈퇴하여 국립국악원으로 옮기고 새로이 강민석을 맞아들였다.

1) 김덕수 - 장고의 천둥

김덕수는 1952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남사당패에서 벽구놀이의 명인으로 손꼽히는 김문학이고, 김덕수는 장남이다. 어려서부터 장고를 만졌으며, 옷다리풍물의 걸직한 기예자인 양도일, 남용운, 송순갑으로부터 장고와 쇠가락을 배운 바 있다. 이 당시 그들로부터 배운 유일한 천둥들이 몇 있는데, 이들이 후에 사물놀이를 조직하게 되는 김용배, 이광수 등이다.

더구나 김덕수는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전통적인 국악인들로부터 다양한 국악이론과 실기를 사사받을 수 있었다. 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국악이론에 대한 분위기를 익히고 터득한 것은 이후에 자신의 예술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을 것이다.